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불가리아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6
3. 경제현황	14
4. 정치	17
5. 주요산업	19

II. 무역

1. 수출입	20
2. 한국과의 수출입	30
3. 수출 유망항목	33
4. 무역협정	36
5. 수입규제 및 관세	42
6. 통관 · 물류	59

III. 투자

1. 투자환경	64
2. 외국인직접투자	71
3. 한국기업 투자	73
4. 투자진출방식	75
5. 외환	79
6. 노무	80
7. 세무	82
8. 지식재산권	85
9. 청산 및 철수	86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87
2. 비즈니스 에티켓	90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93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93

5.출입국 안내	96
6.유관기관	97
7.물가정보	100
8.출장정보	104
9.생활정보	106
10.KOTRA 무역관 안내	116
11.전시회 정보	123
	124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불가리아(The Republic of Bulgaria)
면적	110,370 km ² (자료원 : EU/ 2024년 4월 기준)
수도	소피아(Sofia)
인구	6,447,710 명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2022년 12월 기준)
민족(인종)	○ 불가리아인(84.8%), 터키인(8.8%), 롬인(4.9%) - 민족 조사는 2011년 이후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언어	불가리아어
종교	불가리아 정교(76%), 이슬람교(10%), 카톨릭(0.8%), 기타(0.2%), 무교(4.7%) 등
기후	○ 대륙성 기후로 사계절이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2.2도이다. ○ 지역적으로 중앙의 발칸산맥을 경계로 남부 평야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북쪽은 대륙성 기후이다. ○ 우리나라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나, 겨울에는 눈이 좀 더 많이 내리고 기온이 더 낮으며, 여름에는 습도가 낮아 더운 날씨가 적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겨울은 -5~5도, 여름은 26~30도 내외의 기온대를 유지하는 편이다.

국가원수

- (대통령) Rumen Radev (Румен Георгиев Радев)
 - 2017년 1월 제 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불가리아 대통령 임기는 통상 5년)
 - 2021년 11월 대선에서 재승리하여 2022년 1월부터 제 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까지 이다.

- (총리) 디미타르 글라베체프 (Dimitar Glavchev) (2024년 4월~)
 - 49대 총선(2023년 4월 2일 시행) 결과,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26.5% 득표하여 1당이 되었고, '우리는 계속 변화한다 당(PP)+민주당(DB)*'이 24.5%를 득표하여 2당이 되었다.
 - 2023년 6월 2일, 제1당과 제2당간 9개월씩 돌아가며 총리직을 수행하는 '순환 연립정부' 방식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 'PP-DB당'의 니콜라이 덴코프(Nikolay Denkov)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고, 'GERB당'의 마리아 가브리엘(Maria Gabriel)이 2024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2024년 3월 'PP-DB당'의 니콜라이 덴코프 총리 임기 이후, 'GERB당'의 마리아 가브리엘 총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당의 내각구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순환 연립정부는 지속되지 않았다. 2024년 4월부터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 2024년 6월 9일 조기총선이 시행되었으나 정부수립에 실패했으며 오는 2024년 10월 27일 다시 총선이 진행되었다.
 - 10월 27일 (51대) 총선 결과, GERB-SDS가 1당(69석), PP-DB가 2당(37석), 부흥당(35석)으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 중이다.

- 기타
 - 정부형태 : 의회 민주주의제(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
 - 정부성향 : 2024년 4월부터 과도 정부가 국정 운영 중
 - 주요정당 : GERB-SDS, PP-DB, 부흥당 (2024년 10월 조기 총선 기준)
 - * GERB-SDS는 Граждани за Европейско Развитие на България(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정당과 Съюз на демократичните сили(Union of Democratic Forces)의 연합 정당
 - * PP-DB는 Продължаваме промяната(We continue the Change) 정당과 Демократична България(Democratic Bulgaria)의 연합 정당
 - * 부흥당은 Възраждане 정당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0-03-23 (자료원 : 불가리아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0-11-15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800000054&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94-04-06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70000005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p>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p>	<p>1994-08-13</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50000935&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p>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p>	<p>1995-02-23</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1000064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p>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p>	<p>1995-06-22</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80000815&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p>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p>	<p>1996-06-10</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600000513&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p>불가리아의 EU가입에 따른 2007-01-01부 협정 종료</p>
<p>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p>	<p>2005-11-24</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000000401&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p>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p>	<p>2006-11-16</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10000029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p>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p>	<p>2009-02-23</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170000045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p>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p>	<p>2010-02-11</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1300000021&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p>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p>	<p>2010-03-01</p>	<p>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100000031&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p>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2010-04-08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00000460&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2010-04-08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0000048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2-01-07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1700000407&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2015-08-25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506160000007&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종료 : 2019-08-25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2022-06-01	https://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2204050000001&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한국교민 수

224 명 (자료원 : 2023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현황)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과 불가리아는 1990년 3월 23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2015년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속적인 주요인사 교류를 통해 정치, 경제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양국은 1990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7회의 대통령/총리급 교류(방불 3회, 방한 4회)를 진행했다.

* (한국→불가리아) 한명숙 전 총리(2006), 김황식 전 총리(2011), 이낙연 전 총리(2017)

* (불가리아→한국) 젤레프 전 대통령(1995), 파르바노프 전 대통령(2009), 플레브넬리에프 전 대통령(2015), 보리소프 전 총리(2019)

특히, 2017년 이낙연 전 총리의 불가리아 방문을 기점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 협력을 적극 강화 중에 있는데, 그 결과, 2018년에는 한-불

비즈니스 포럼과 에너지 협력 포럼이 개최됐으며, 양국은 그동안 중단됐던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아가, 2019년에는 보이코 보리소프 전 총리가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방한 기간 보리소프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한국 정상을 만나 양국 간 무역, 투자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0년은 한국-불가리아 수교 수립 30주년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된 행사 다수가 취소되었고, 대신 2020년 3월 31일 양국 정상(문재인 전 대통령과 보리소프 전 총리)은 유선 통화를 통해 수교 30주년 축하, 코로나 위기 공동 극복, 향후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2023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니콜라이 덴코프 불가리아 총리가 슬로베니아에서 만나 양국 간 협업을 논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미래 지향자적 동반자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2024년 2월, 김진표 국회 의장이 불가리아를 방문하였으며 니콜라이 덴코프 전 총리, 루멘 라데프 대통령 등과 면담을 가졌다. 에너지, 방산 등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미래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1) 무역

2023년 한국의 對 불가리아 수출은 약 1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 증가, 수입은 약 3억 5,800만 달러로 약 15% 증가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5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한국 기준 1억 6,200만 달러 적자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한국 기준 對 불가리아 무역수지 현황: (2019) -8,900만 달러 → (2020) -5,100만 달러 → (2021) -2억 6,900만 달러 → (2022) -1억 4,400만 달러 → (2023) -1억 6,200만 달러

2023년 한국은 불가리아에 합성수지(4,700만 달러), 승용차(2,800만 달러), 전기차(1,200만 달러) 등을 수출했으며, 사료(1억 1,900만 달러), 동조가공품(3,400만 달러), 직물제의류(3,200만 달러) 등을 수입했다.

2) 투자

한국의 對 불가리아 투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누적 투자액(2억 3,254만 달러)의 63.5%가 '전기/가스 공급업'이다. 주로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로 2010년대 초반 불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관련된 한국의 투자 진출이 활발했으며, 2022년 해당 분야에서 2백만 달러의 추가 투자 진출이 있었다. 2023년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 A사가 불가리아 IT 기업에 지분 투자를 통해 진출했다. 또, 동종 업계의 B사는 법인 설립 후 현지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등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투자 진출이 많다. 불가리아 정부도 미래 자동차를 혁신 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반대로, 2023년 기준 불가리아의 對 한국 누적 투자액은 1.44백만 달러, 투자 건수는 9건(제조업 1건/ 서비스업 8건)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3) 기타 경제 협력 이슈

2017년 이낙연 전 총리의 방불을 계기로 한국-불가리아 상공회의소가 출범했다. 2019년에는 보리소프 전 총리의 방한과 연계하여 불가리아 경제 사절단이 방한, 대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무역/투자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KOTRA는 불가리아 투자청(IBA), 중소기업청(BSMEPA)과 투자/무역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은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2023년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IT,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불가리아의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라데프 대통령은 "방산, 인공지능,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의 불가리아 진출을 기대한다"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도, 2022년 불가리아 소피아시는 한국의 세종시, 부산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불가리아 벨리코 터르노보시는 한국의 경주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시는 2024년 10월, 소피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이후 '한-불 친선협회'의 불가리아 방문과 양국 간 공무원의 교환 방문 등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4) 에너지 협력

불가리아의 '코즐로두이(Kozloduy)'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원전 EPC공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우리 건설 기업이 결정됐다. 2024년 9월,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Vladimir Malinov)'는 한국을 방문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났으며 한국무역

보험공사, 한국 수출입은행 등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불가리아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이의 후속조치로 2024년 11월 1일, 불가리아에서 '한-불 에너지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24년 11월 4일, 한국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코즐로두이(Kozloduy)'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화

1) 한국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현지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소피아 대학에는 한국학과가 있으며, 우정통신대학, 플로브디프 대학, 플로브디프 의과대학, 바르나 대학, 벨리코터르노보 대학에는 한국어 강좌가 있다. 한국어 과정을 교육하는 초, 중, 고등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18번 학교는 전 학년 대상으로 한국어반을 정규로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19번 학교, 97번 학교, 바르나 제1외국어고등학교, 부르가스 6개 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되고 있다. 2020년, 불가리아 대사관은 18번 공립 학교 내 '디지털 한국어 학습센터' 개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소피아대학 주관으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TOPIK'이 실시되고 있으며, 연평균 응시자는 100~150명 내외이다. 또한, 주불가리아 한국 대사관 주최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등 불가리아인의 한국어 학습을 장려하는 행사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 태권도

태권도를 중심으로 체육 분야 내에서도 한국과 불가리아 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국기원에서 태권도 사범이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있으며, 불가리아 태권도 협회도 매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 한식

불가리아의 한류는 현지인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피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이 몇 개 있으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비빔밥, 양념치킨과 같은 한식 메뉴를 판매하거나 고추장, 불고기 양념, 김치와 같은 한국적인 식재료를 기존 요리에 가미한 퓨전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다.

과거 한식당에서 솥인솥 방식으로 소량 유통되던 라면, 과자 등 한국 식품들이 판타스티코(Fantastico) 등 불가리아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 유통되고 있다. 2021년 이후 소피아 내 몇 개의 한국 식품 전용 매장이 개업하기도 했다. 주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은 한식 콘테스트, 한식 시연회 등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 홍보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4) 기타 한류 문화

젊은 사람들은 K-POP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으로, SNS(유튜브, 틱톡 등)를 이용한 많은 댄스 커버 영상들이 업로드 되고 있다. K-POP 동호회 간 댄스 경연대회도 자주 열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회, 한국 사진전, 한국 영화제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에 많은 불가리아인이 참여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불가리아에서 처음으로 한복 패션쇼가 열렸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한국 K-POP 그룹의 공연도 진행된 바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4.4	4.2	3.9	1.8	
명목GDP (십억\$)	70	80.33	90.42	101.61	
1인당 GDP (PPP, \$)	23,739.1	25,914.2	31,990	33,980	
1인당 명목 GDP (\$)	10,119.9	11,683.9	14,020	15,850	
정부부채 (% of GDP)	23.3	23.8	21.8	21	
물가상승률 (%)	1.2	2.8	13	8.6	
실업률 (%)	5.2	5.3	4.2	4.4	
수출액 (백만\$)	31,125	40,569	50,233	46,100	
수입액 (백만\$)	33,340	44,469	58,043	49,900	
무역수지 (백만\$)	-2,215	-3,900	-7,810	-3,800	-
외환 보유고 (백만\$)	35,377.55	36,798.32	36,613	35,400	
이자율 (%)	0	0	0	3.79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59	1.73	1.79	1.79	

<자료원 : IMF, World Bank(외환보유고), 불가리아 중앙은행(이자율, 환율), EIU(수입액, 수출액)>

나. 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2023년 EU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불가리아도 전년 대비 감소한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 물가상승률

2023년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안정된 8.6% 기록했다. 그러나 체감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는데, 유럽에서 두번째

로 많이 상승한 부동산 가격과 고기류 등 식품 가격이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3) 실업률

2023년 불가리아의 실업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4) 환율

불가리아는 2002년부터는 레바(BGN으로 표기)를 유로에 '1유로=1.95583레바 비율로 고정시키는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유로존 이전 단계인 ERM II(Exchange Rate Mechanism II) 가입에 성공했다.

참고로 불가리아는 ERM II 가입 이후 레바와 유로 간의 환율을 2년 이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유로존에 가입할 자격(마스트리히트 기준)이 주어지게 된다.

5) 국가신용도

2019년 5월, Standard & Poor's는 불가리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A-3에서 BBB/A-2로 상향했으며 해당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20년 7월 불가리아가 성공적으로 ERM II에 가입함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도 상승이 기대됐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정부 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추가적인 신용도 상승은 없었다.

6) 부분적 생계 합류

공항을 통한 조약국 입국시 여권 검사를 면제하는 부분적 생계에 가입했다. 그 결과 생계 조약국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관광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다. 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EU기금의 집행 지연, 세계적 고금리, 주요 교역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IMF는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낮은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주로 유럽 역내 교역이 60% 이상이며, 원부자재, 부품을 공급 받아 가공 후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최근 유럽의 경기둔화 추세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불가리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부터 EU기금의 본격적인 집행 시작이 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2024년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3월, 순환 연립정부 구성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어지는 총선(2024년 6월 9일)의 결과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IMF의 불가리아 경제 성장 전망: (2023)1.8% → (2024)2.7% → (2025)2.9%

2) 물가상승률

'러-우 사태' 영향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과 공산품 가격의 영향으로 체감 물가 상승률은 아직은 높은 편이다. 2024년부터는 물가 상승이 더욱 안정화 되면서 3.4%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년의 2%대 까지는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 실업률

IMF의 예측에 의하면 2024년 실업률은 약 4.4%로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4) 단일통화(유로존) 전망

불가리아는 2026년까지 유로존 가입을 우선 목표로 삼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로존 가입에 성공하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EU는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조건으로 부정부패 척결, 사법 체계 정비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개혁 추진 상황에 따라 실제 유로존 가입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존 가입 시 높은 물가 상승이 예상되며 유로존 가입을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5) 국가신용도

2019년 5월, Standard & Poor's는 불가리아의 신용 등급을 기존 BBB-/A-3에서 BBB/A-2로 상향했으며 2024년 5월 기준,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제 회복 및 재정 건전성 확대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경우, 혹은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신용등급 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S&P는 불가리아의 경제전망을 '안정적(Stable)' 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했다.

6) 쉥겐 조약 가입 전망

불가리아는 2025년 전 완전한 쉥겐 조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방향을 선회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쉥겐은 조약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의장국(헝가리)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유럽 완전 통합을 기대하고 있다.

4. 정치

가. 정치체제

- 정치 체제
 - 불가리아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로 운영되며, 의원내각제의 수장은 '총리'이다.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선거체제
 - 대통령 선거 : 불가리아는 결선 투표제 국가다. 과반이 넘으면 득표를 한 후보가 있으면 당선되나, 과반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로 다시 맞선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하다.
 - 국민 의회 선거 : 불가리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불가리아 헌법 제 64조에 따라 총 24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단원제이며, 전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봉쇄조항은 4%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4% 미만으로 득표한 정당은 의회 입성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내각이 해산되고 재수립이 되지 않을 경우 조기 총선이 진행될 수 있다.
 - 지방 선거 : 27개의 주(수도인 소피아는 시와 소피아 주(수도 주변의 행정구역)이 함께 진행됨)의 장과 265개 시의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지방 선거가 있다. 지방 선거는 직접 선거이며, 역시 결선 투표제로 진행된다. 지방 선거는 매 4년마다 이루어진다.

나. 최신동향

- 2023년 4월 49대 총선 결과
 - 기존 집권당이던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26.5%로 1위를 차지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 이번 선거가 있기 전, 2023년 2월에는 주요 야당인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과 민주당(DB)이 합당을 단행하였으며, 2위를 차지했다.
 - 극우성향의 부흥당(Revival)이 득표율 14.2%로 3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항상 3위 자리를 고수해왔던 권리자유운동당(MRF)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 2023년 6월, 18개월간 1당과 2당이 총리직을 순환하여 운영하는 연립정부 출범
 - 2023년 6월 2일, 2당인 PP-DB당과 1당인 GERB당은 번갈아 총리직을 맡아 9개월씩 정국을 운영하는 18개월간의 순환정부 방식을 발표하였다.
 - 첫 9개월은 니콜라이 덴코프(PP-DB당)가 총리직을 수행하며 마리아 가브리엘(GERB당)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직을 수행한다. 다음 9개월은 마리아 가브리엘이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이후 1년만에 정규 정부가 수립 성사이며 유로존과 쟁쟁조약 가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23년 10월, 지방 선거 시행
 - 2023년 10월 29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위원들이 선출되었다.
 - 2차선거(11월 5일) 결과 수도인 소피아와 흑해 연안 도시 바르나의 시장 선거에서는 PP-DB당이 승리했으며, 제2의 도시인 플로브디프와 흑해 연안의 도시 부르가스의 시장 선거에서는 GERB당이 승리했다.
 - 요르단카 판다코파(GERB)는 약 15년 이상(2009~2011, 2011~2023) 소피아 시장직을 수행했으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후임 시장인 바실 테레지예프는(PP-DB-Save Sofia)는 IT 기업 CEO 출신이다.
- 2024년 3월, 내각 해산
 - 2023년 6월에 출범한 순환 방식 연립 정부는 9개월 만에 해산되었다.
 - 양 당 간 내각 수립 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파기했으며 그 이후 정식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여 임시 정부가 출범했다. 조기 총선은 오는 2024년 6월 9일에 진행 예정이다. 국회는 4월 말 까지 운영되고 조기총선 준비를 위해 휴업한다.
- 2024년 6월 조기 총선 결과
 - 2024년 6월 9일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GERB'가 68석, 'MRF'가 47석, 'PP-DB'가 39석으로 그 어느 정당도 단일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 이 후 정당간 협의 불발로 정부 수립에 실패했으며 오는 2024년 10월 27일 또 다시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 2024년 10월 조기 총선 결과
 - 51대 총선에서는 예상대로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득표율 25.5%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민주당(DB)이 득표율 13.7%로 2위, 극우 성향의 부흥당이 12.9%로 3위를 차지하였다.
 - 이전 선거에서 그랬듯이 군소정당의 난립과 분열된 국회로 인해 이번에도 연립 정부 구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대외관계

- EU : 불가리아는 2007년 EU에 가입하면서 EU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게 국정 운영을 해오고 있다. EU로부터 EU기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에서 주도하는 '스카이실드 이니셔티브'에 가입, 유럽 통합 방공망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아이리스(IRIS-T)' 도입 계약에 사인했다.
- 미국 : 2004년 NATO와 2007년 EU 가입을 통해 미국과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 정보통신, 에너지, 방산 등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여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또 코졸루두이 원자력 발전기 7호 추가 설치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F-16V를 16대 구매하였으며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도입하는 등 미국산 무기 체계의 도입이 활발하다.
- 러시아: 불가리아는 에너지, 방산, 교통 인프라 등 프로젝트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와 공동으로 러시아에 대응한 결과,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 외교관 70여 명을 추방하기도 하는 등 양국 간 외교 관계가 과거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국방 전략서에 따르면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 중국 : 중국과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4회 불가리아 총리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 사회적 특징

- 정치 분야의 오랜 부패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깊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2023년 부패 지수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180개국 중 67위 수준이다. 그러나 부패방지 제도의 도입으로 전년 72위와 비교해 5계단을 올라왔다.
- 일부 불가리아 국민은 반러 성향뿐 아니라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고, 20세기 공산주의 정권부터 정치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관련한 분쟁의 영향으로 EU, 미국과의 공조로 EU의 대러 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의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러시아 자본의 유입을 막기 시작하는 등 EU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 불가리아는 EU 가입 이후,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인력들을 신산업 인력으로 직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예: 화력 -> 신재생에너지 산업)

라. 정책 · 법령

- 정책 : 2007년 EU에 가입한 이후로, EU 기준을 수용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기금을 활용하여 국가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 (그린에너지) 불가리아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에너지 및 자원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생산 및 사용 촉진, 건축 자재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친환경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도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5, 6호가 운영중이며, 7, 8호기를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불가리아 동부의 스타라자고라(Stara zagora) 지역에 수소 밸리를 구축하여 R&D 및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디지털 전환) 불가리아는 2022년 유럽연합에서 진행된 디지털 및 사회 지표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중 26위였다. 불가리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교육 및 복지) 교육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STEM(수학, 공학, 이학 등 특화교육)을 추진해 국가 핵심 기술력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U기금을 활용한 보건 체계 또한 의료 체계 및 장비 현대화 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 (군현대화) '러-우' 전쟁의 지속으로 불가리아군은 '2030 국방전략'을 발간,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시하고 NATO군 체계를 흡수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법체계 : 독일법과 프랑스법이 혼합된 대륙법 체계이다.
 - 성문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판례를 직접적인 법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법적 관행, 도덕 규칙, 정의' 등은 법 해석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사법제도는 3심제를 두고 있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배석할 수 있다. EU 회원국으로써 비준한 EU법과 국제조약, 헌법 재판 판결 등도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 법원은 시·군법원(Regional Court), 지방법원(District Court), 항소법원(Appellate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of Cassation)으로 나누어져 있다.
 - 오래된 법제도 개정과 공무원 재산 신고 제도, 공공 조달법 등 선진 제도 도입,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https://dv.parliament.bg/DVWeb/index.faces>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영문 버전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영어가 가능한 현지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 산업구조

- 불가리아는 서비스업이 약 65.5%, 제조업이 29.5%, 농림어업이 약 5%의 비율로 서비스업 중심 국가이다.
- 서비스업은 주로 전력공급업, IT업종, 금융업, 도소매 유통업 등이다.
- 주요 제조업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컴퓨터 ICT 산업 등이 있다.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EU역내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가공후에 EU역내로 재수출하는 비율이 높다.
- 농업은 장미, 채소류, 해바라기 등의 작물과 와인, 장미등의 농산품들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 산업 투자동향

- 자동차 부품, ICT, 전자기기 제조, 방산, 제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불가리아로 진출하고 있다.
- 저렴한 노동력과 우수한 공학 인재, 유럽연합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제조 생산의 거점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공된 제품들은 서유럽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자동차부품) 유럽 내 새로운 전기차 벨류 체인 형성으로 불가리아에도 관련 투자 증가

- 약 270개 이상의 부품업체들이 운영중이며, 총 경제규모는 47억 유로 수준이다. 자동차부품 산업은 GDP의 약 10%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 현지 완성차 제조공장은 없으나 자동차부품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불가리아에서 생산된 부품은 주로 서유럽 국가로 납품하고 있다.
- 수도인 소피아(Sofia)와 대도시인 플로브디프(Plovdiv) 지역 주변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운영 중이다.

○ (전자기기) 서유럽 등 글로벌기업에서 핵심부품을 수입, 가공 후 재수출

- 전체 GDP의 5%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산업으로, 약 5만 명 이상의 관련 산업 종사자가 있다. 연 평균 약 8.9%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전체 산업 규모는 약 37억 유로이다.
- 타 EU회원국 대비 낮은 인건비를 활용, POS단말기, 카지노용 게이밍머신 등 전자기기의 핵심부품을 공급받아, 조립·가공하여 재수출하고 있다.
- * 2023년 현지 언론 'Sofia Globe'의 보도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9.3유로로, EU평균인 약 32.2유로와 비교해 약 29% 수준이다.

○ (ICT) 전통적인유럽의 ICT 아웃소싱 강국, ICT 스타트업 성장 확대

- 전체 GDP의 약 5%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산업으로, 약 7만 명 이상의 관련 산업 종사자가 있다. 연 평균 약 19% 성장했다. 전체 산업 규모는 약 33억 유로 정도이다.
- 불가리아는 BASSCOM(Bulgarian Association of Software Companies)을 통해 ICT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SAP', 'HP', 'Vmware', 'Oracle'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선두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 세계적인 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2년 불가리아 ICT 스타트업들은 2억 4,400만 유로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 (의약품) 고부가가치 업종인 제약업의 제조기지로 발전

- 약 4만 명 이상의 관련 산업 종사자가 있다. 연 평균 약 7.7% 성장을 보였다. 전체 산업 규모는 약 135억 유로 정도이다.
- 약 20,0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기관등이 불가리아에 소재하고 있다.
- 불가리아는 2020년부터 유럽연합의 MEGA(The Million European Genomes Alliance)에 가입,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 수출입 동향
 - 2023년 불가리아의 총 교역액은 966억 달러로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2023년 수출액은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509억 달러로 전년대비 11.6% 감소하였다.
 - 상위 10개 교역국 중, 폴란드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역량이 감소했다.
 - 서유럽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ICT 제품 등에 대한 교역이 확대되었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 불가리아는 EU 역내, 러시아,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교역 비중이 높은 편이다.
 - EU 역외국보다 역내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 * 2023년 EU 역내 수출 비중 : 60.6% / EU 역내 수입 비중 : 59.9%
 - 지리·문화적으로 인접한 터키, 러·우 사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유 수입원인 러시아와 저렴한 공산품을 생산하는 중국 등과의 교역이 큰 편이다.
- 2023년 기준 수출 상위 10개 국가
 - 독일 : 65억 달러 수출 (점유율 13.6%)
 - 루마니아 : 44억 달러 수출 (점유율 9.2%)
 - 이탈리아 : 34억 달러 수출 (점유율 7.5%)
 - 튀르키예 : 28억 달러 수출 (점유율 5.8%)
 - 그리스 : 26억 달러 수출 (점유율 5.5%)
 - 프랑스 : 16억 달러 수출 (점유율 3.3%)
 - 벨기에 : 15억 달러 수출 (점유율 3.2%)
 - 스페인 : 13억 달러 수출 (점유율 2.6%)
 - 미국 : 11억 달러 수출 (점유율 2.4%)
 - 폴란드 : 11억 달러 수출 (점유율 2.4%)
 - * 한국은 불가리아의 33위 수출국으로 2억 4천만 달러 수출 (점유율 0.5%)
- 2023년 기준 수입 상위 10개 국가
 - 독일 : 66억 달러 수입 (점유율 12.4%)
 - 튀르키예 : 44억 달러 수입 (점유율 8.2%)
 - 루마니아 : 36억 달러 수입 (점유율 6.8%)
 - 이탈리아 : 36억 달러 수입 (점유율 6.7%)
 - 러시아 : 35억 달러 수입 (점유율 6.6%)
 - 중국 : 29억 달러 수입 (점유율 5.4%)
 - 그리스 : 24억 달러 수입 (점유율 4.4%)
 - 네덜란드 : 22억 달러 수입 (점유율 4.1%)
 - 폴란드 : 21억 달러 수입 (점유율 3.9%)
 - 헝가리 : 19억 달러 수입 (점유율 3.5%)
 - * 한국은 불가리아의 37위 수입국으로 2억 달러 수입 (점유율 0.4%)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207,357,462
2	루마니아	2,972,858,145
3	이탈리아	2,464,990,749
4	그리스	2,141,657,162
5	튀르키예	2,095,490,450
6	프랑스	1,318,658,085
7	중국	1,215,034,130
8	벨기에	1,190,464,706
9	네덜란드	909,501,099
10	폴란드	846,895,675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239,790,956
2	루마니아	4,255,943,333
3	이탈리아	3,492,898,345
4	그리스	2,954,174,175
5	튀르키예	2,565,687,112
6	프랑스	1,624,746,797
7	중국	1,507,751,311
8	벨기에	1,439,558,573
9	스페인	1,221,755,424
10	미국	1,150,223,91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240,708,077

2	루마니아	5,344,871,246
3	이탈리아	3,879,221,784
4	그리스	3,315,746,322
5	튀르키예	3,000,275,974
6	프랑스	1,745,289,432
7	폴란드	1,688,834,966
8	네덜란드	1,502,210,319
9	벨기에	1,423,252,568
10	스페인	1,417,429,60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658,451,203
2	루마니아	4,512,330,954
3	이탈리아	3,437,433,963
4	튀르키예	2,788,651,888
5	그리스	2,715,582,633
6	폴란드	2,173,517,260
7	프랑스	1,642,246,323
8	벨기에	1,621,124,033
9	미국	1,401,211,161
10	스페인	1,342,832,036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284,412,407
2	루마니아	2,583,930,165
3	이탈리아	2,501,418,270
4	튀르키예	2,498,468,645

5	러시아연방	2,378,294,703
6	중국	1,793,462,409
7	그리스	1,734,072,642
8	네덜란드	1,436,371,415
9	헝가리	1,395,024,082
10	폴란드	1,324,483,20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710,797,240
2	튀르키예	3,662,525,107
3	러시아연방	3,595,219,765
4	루마니아	3,520,234,358
5	이탈리아	3,150,702,483
6	그리스	2,552,625,029
7	중국	2,529,561,999
8	네덜란드	1,994,884,493
9	헝가리	1,728,215,173
10	폴란드	1,670,017,38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러시아연방	6,289,117,231
2	독일	6,285,779,081
3	튀르키예	4,901,855,667
4	루마니아	4,007,339,508
5	그리스	3,520,338,814
6	이탈리아	3,493,064,913
7	중국	3,376,372,904
8	네덜란드	2,456,527,822

9	폴란드	1,940,167,588
10	헝가리	1,839,361,212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679,532,751
2	튀르키예	4,412,307,660
3	루마니아	4,182,563,084
4	이탈리아	3,603,522,134
5	러시아연방	3,507,514,303
6	중국	2,899,475,304
7	그리스	2,414,663,823
8	네덜란드	2,222,957,660
9	폴란드	2,129,081,797
10	헝가리	1,878,036,884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출 품목

-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보일러/기계류, 구리제품, 사료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 서유럽에서 하청받은 전자기기를 가공 후 재수출하고,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사료 및 동물성 왁스류 수출했다. 흑해의 정유소에서 원유를 정제하여 수출하기도 한다.

○ 주요 수입 품목

-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보일러/기계류, 일반차량, 광슬레그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 중간재 가공을 위한 원자재, 정유를 위한 원유를 수입하였다. 또 완성차 제조공장이 없어 자동차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2023년 기준 수출 상위 10개 품목

- 전자기기: 51억 달러
- 광물성연료 : 37억 달러
- 보일러/기계류: 37억 달러
- 구리제품 : 34억 달러
- 사료 : 23억 달러

- 차량 : 16억 달러
- 플라스틱제품: 14억 달러
- 의약품: 13억 달러
- 광슬레그 : 11억 달러
- 광학제품: 10억 달러

○ 2023년 기준 수입 상위 10개 품목

- 전자기기: 61억 달러
- 광물성연료 : 58억 달러
- 보일러/기계류: 50억 달러
- 일반차량 : 39억 달러
- 광슬레그: 22억 달러
- 플라스틱제품 : 22억 달러
- 의약품: 20억 달러
- 철강: 18억 달러
- 구리제품 : 12억 달러
- 철강제품: 10억 달러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88,669,394
2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186,128,696
3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1,005,355,062
4	300490	기타	811,109,007
5	100199	기타	742,807,507
6	261690	기타	736,537,203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82,187,913
8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34,371,475
9	271019	기타	530,385,626
10	100590	기타	507,786,10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784,814,799
2	100199	기타	1,327,067,123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86,232,793

4	271600	전기에너지	1,030,642,130
5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1,001,860,468
6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23,542,144
7	261690	기타	882,604,190
8	300490	기타	849,255,412
9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744,438,203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96,467,56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871,758,843
2	271019	기타	2,304,541,898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809,463,436
4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642,783,739
5	100199	기타	1,437,678,013
6	151211	조유(粗油)	1,435,387,467
7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1,430,425,879
8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408,623,064
9	271600	전기에너지	1,008,388,338
10	300490	기타	865,563,742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099,839,830
2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650,290,199
3	100199	기타	1,635,434,444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568,079,153
5	271019	기타	1,147,008,248

6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962,636,506
7	300490	기타	943,998,694
8	930690	기타	937,230,150
9	382600	바이오티셀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31,139,659
10	261690	기타	800,598,32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1,837,957,322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748,229,733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52,384,792
4	300490	기타	1,101,240,758
5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497,959,181
6	271019	기타	452,741,733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34,820,984
8	271121	천연가스	428,175,156
9	382600	바이오티셀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68,463,737
10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33,459,085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313,368,737
2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230,152,575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159,220,197
4	271121	천연가스	1,573,793,230
5	300490	기타	1,235,193,650
6	271019	기타	739,716,765

7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03,363,434
8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57,041,134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43,323,030
10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92,673,331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174,883,876
2	271121	천연가스	3,155,265,601
3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400,552,825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177,933,127
5	300490	기타	1,213,899,467
6	271019	기타	1,101,434,434
7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94,404,960
8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012,248,624
9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69,090,890
10	854143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501,523,209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140,146,521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526,282,824
3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030,025,825
4	300490	기타	1,424,129,178
5	271600	전기에너지	1,006,657,094
6	271019	기타	840,438,080
7	271121	천연가스	788,226,112
8	851713	스마트폰	587,082,971

9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65,580,075
10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065,499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 2023년 한국과 수출입
 - 양국 간 교역액은 5억5,400만 달러로, 불가리아는 한국과 교역액 기준 92위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2023년 한국과 불가리아 교역현황
 - 한국의 대 불가리아 수출액은 1억9,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7% 증가했고, 수입액도 3억5,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여, 총 교역이 15.9% 증가했다. 무역적자는 1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157	209	-52
2021	167	436	-269
2022	167	311	-144
2023	196	358	-162
2024	182	207	-2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수출품목
 - 기타기계류, 합성수지, 승용차, 금속절삭기계, 화장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 페트병 원료인 폴리에틸렌 수지, 플라스틱 원료인 아크릴 PMMA 수지 등 합성수지가 많이 수출된다.
 - 폴리에스터 섬유는 수출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이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한국산뿐 아니라 중국산, 베트남산 등 타 원산지에서 수출 또한 병행하기 때문이다.
- 수입품목
 - 사료, 식물제 의류, 동광, 자동차 기기 등 1차 생산품과 의류, 자동차기기 등이 한국의 대 불가리아 주요 수입품목이다.
 - 동물용 사료(NON GMO식용옥수수 등)가 2023년 1위 수입품목이다.
 - 동광이 2위 수입품목이며, 곡류와 의류 등도 많이 수입한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901	기타기계류	2	1	1
2	2140	합성수지	47	0	46
3	7411	승용차	28	0	27
4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2	0	2
5	2273	화장품	8	1	7
6	7419	기타자동차	6	0	6
7	3203	타이어	7	0	6
8	7281	경작기계	4	0	4
9	7121	운반하역기계	0	0	-1
10	7414	전기자동차	12	0	1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901	기타기계류	30	1	29
2	2140	합성수지	26	0	26
3	7411	승용차	13	0	13
4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10	0	10
5	2273	화장품	9	0	9
6	7419	기타자동차	9	0	9
7	3203	타이어	8	0	8
8	7281	경작기계	6	0	6
9	7121	운반하역기계	6	0	6
10	7414	전기자동차	5	0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36	사료	0	119	-120

2	4412	식물제의류	0	32	-33
3	1130	동광	0	0	0
4	8425	자동화기기	0	13	-13
5	1190	기타금속광물	0	15	-16
6	6222	동조가공품	0	34	-35
7	4411	편직제의류	0	11	-11
8	2262	의약품	1	8	-7
9	6221	동괴및스크랩	0	3	-3
10	0111	곡류	0	18	-1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36	사료	0	57	-57
2	4412	식물제의류	0	25	-25
3	1130	동광	0	16	-16
4	8425	자동화기기	0	11	-11
5	1190	기타금속광물	0	10	-10
6	6222	동조가공품	0	9	-9
7	4411	편직제의류	0	7	-7
8	2262	의약품	1	6	-5
9	6221	동괴및스크랩	0	6	-6
10	0111	곡류	0	5	-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농업용 트랙터

HS CODE	8701	수입액 (US\$백만)	680
수입관세율(%)	3% (FTA 적용시 0%)	대한 수입액 (US\$백만)	5
선정사유	불가리아는 EU 의 농업기금을 받아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가 지원금을 통한 현대식 농기계류의 수요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시장동향	현대식 농기계 도입도 계속되고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의 수입액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8.6% 증가했다.		
경쟁동향	주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EU역내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진출방안	농기계류 진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발굴하는것이 우선이다. 또한 공격적인 판촉 (할인, A/S, 보증)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 승용차

HS CODE	8703	수입액 (US\$백만)	1,743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4
선정사유	낮은 소득 수준으로 중고차 위주 시장을 형성, 가성비 좋은 한국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다. 신차의 경우 한국산 SUV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동향	경찰차, 택시 등이 기아의 'Ceed' 모델로 채택되면서 한국차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현지 대형 택시기업 Y사는 한국산 전기자동차인 니로를 자사 신형 모델로 선정, 운용하고 있다.		
경쟁동향	2023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승용차 수입 20위(HS 8703 기준)로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다만 한국 뿐 아니라 유럽내 한국자동차 공장에서 들어오는 신차 물량까지 합치면, 2023년 기준 한국산 승용차 판매량 1위이다.		
진출방안	불가리아 내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 추세로, 한국산 친환경 차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입시에 통관을 위해서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원본을 지참해서 통관해야한다.		

◦ 범용 자동차 A/S 부품

HS CODE	8708	수입액 (US\$백만)	462.5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5
선정사유	낮은 소득 수준으로 중고차 위주 시장 형성, 높은 중고차 비율로 인해 부품 교체 수요 상시 존재한다.		
시장동향	현대, 기아 등 국산 자동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경쟁동향	2023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자동차부품 수입 37위(HS 8708 기준) 기준이며, 독일, 폴란드, 튀르키예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진출방안	대부분 한국 자동차 정식대리점에서 A/S까지 겸해 부품 또한 대리기업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별도로 A/S부품을 수출할 경우 물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	---	--	--

○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액 (US\$백만)	216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2
선정사유	2021~2027년 기간 EU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동향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으며, 불가리아는 의료기기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한국산 진단기기에 대한 문의가 많다.		
경쟁동향	2023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의료기기 수입 19위(HS 9018 기준)로 체코, 독일, 네덜란드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진출방안	불가리아 파트너 기업 발굴을 통해 EU 기금을 활용한 의료 분야 프로젝트 진출이 유망하다. 진출을 위해서 CE-MDR 인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것이 유리하다.		

○ 식품류(라면)

HS CODE	1902	수입액 (US\$백만)	28.3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8.4
선정사유	2023년 라면 등 한국산 면류 수입 증가율이 2022년 대비 21.5% 증가하였다.		
시장동향	불가리아 내 한식당 및 식료품점 증가하고 있으며,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면은 한국 식료품 매출 1위 품목이다. 현지 대형 쇼핑몰에 한국 라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숭인습 방식으로 아시아 식품 매대가 증가하고 있다.		
경쟁동향	2023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면류 수입 8위(HS 1902 기준)이며,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러시아, 이탈리아가 주요 수입국이다. * HS 190230 기준으로는 한국라면은 불가리아 수입국 기준 3위		
진출방안	면 제품의 60%가 대형슈퍼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대형 슈퍼마켓 체인 납품 중인 바이어 발굴이 중요하다.		

○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 (US\$백만)	153.7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6.4
선정사유	2023년 불가리아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은 약 6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7% 성장했다.		
시장동향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오프라인 구매 빈도가 높다. 천연화장품, 마스크팩, 클렌징, 안티에이징 제품 등 기초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품목당 주로 판매되는 가격은 10~20유로 사이이다.		

경쟁동향	2023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화장품 수입 8위(HS 3304 기준)로 프랑스, 독일, 체코, 크로아티아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진출방안	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CPNP 등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온라인 마케팅과 유럽 주요 전시회(블로냐 코스모프로프), 소피아무역관에서 매년 개최하는 K-굿즈 워크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스마트 시티

선정사유	스마트시티 구축비율이 타 EU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향후 수요가 기대된다. * 불가리아는 2022년 EU DESI(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에서 27개국 중 26위를 기록
시장동향	불가리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30 계획(Digital transformation of Bulgaria for the period 2020-2030)'을 발표하였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력 양성, 혁신성 강화와 데이터 개방,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지역개발 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정책과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르가스시가 스마트시티 구축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경쟁동향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입찰과정에서 EU역내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하다.
진출방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EU역내국가의 유력파트너와 협업이 중요하다.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프로젝트 발주 전에 파트너와 미리 철저히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케냐	2023-06-29	2024-07-01	발효
SIFA(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	앙골라	2023-11-17	2024-09-01	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AA(Association 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CU(Customs Union)	산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1999-07-01	* 2017년 개정 협상 시작. 2019 협상 잠정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페로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발효,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9-06-30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FTA(Free Trade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 (2022.12. 협정 현대화 협상 완료)

FTA(Free Trade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27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온두라스	2012-06-29	2024-05-01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2018-06-30	2024-05-01	

<자료원 :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2007 ASEAN 협상지침 기반) 2023.3.15. 협상 재개 협상 중, 직전 협상: 2023.9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2007 ASEAN 협상지침 기반) 협상 중, 직전 협상: 2023.7.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재개, 2023. 7.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2017.4.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2013년 협상 중단 후 2022년 재개, 협상 중, 1차 TTC : 2023.5	EU-인도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발족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FTA(Free Trade Agreement)	키르기스스탄	협상 및 법리 검토 완료 (2022년 말까지 번역 및 제출 예상)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DTA(Digital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23년 10월 협상 시작	

GASSA(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미국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 진행 중	
CMA(Critical Minerals Agreement)	미국	2023년 6월 협상 시작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타지키스탄	2023년 2월 협상 시작	
DTA(Digital Trade Agreement)	싱가폴	2023년 7월 협상 시작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케냐	2024년 7월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2000년 협상 시작, 2024년 협상 중	

<자료원 :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4809900010,4811900010,4816900010,4823908520	감열지(특정 경량지)(Thermal paper (certain lightweight))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17.5.4 ~ 2028.7.1	○ 판정결과 : EURO103.16 / t * 2023.6.30 : 일몰재심 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2	4809900020,4811590020,4811900020	감열지(특정 중량지)(Thermal paper (certain heavyweight))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0.10.21 ~ 2025.10.21	○ 판정결과 : 15.8%
3	3906909017	고흡수성 수지 (Superabsorbent polymers)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2.4.7 ~ 2027.4.7	○ 판정결과 : 13.4 ~ 18.8%
4	28046900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수출(반덤핑)(규제중)	중국, (한국, 대만)	○ 부과기간 : 2022.8.13 ~ 2027.8.13	○ 판정결과 : 16.3% ~ 16.8% * 중국산 한국, 대만 우회수출품도 규제 * 2022.8.12 : 일몰재심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5	7225110011,7225110015,7225110019,7226110012,7226110014,7226110016,7226110092,7226110094,7226110096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규제중)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 부과기간 : 2022.1.18 ~ 2027.1.18	○ 판정결과 · 일본 : 35.9 ~ 39.0% · 중국 : 21.5 ~ 36.6% · 한국 : 22.5% · 러시아 : 21.6% · 미국 : 22% * 2022.1.14 : 일몰재심후 조치 연장 결정

6	7312108113,7312108119,7312108313,7312108319,7312108513,7312108519,7312108913,7312108919,7312109813,7312109819	철강 와이어 로프(Steel wire ropes)	우회수출(반덤핑)(규제중)	한국, 중국, 모로코	○ 부과기간 : 2018.4.20 ~ 2029.6.7	○ 판정결과 · 중국 : 60.4% · 모로코(우회) : 60.4% · 한국(우회) : 60.4% * 일몰 재심 후 규제연장 (2024.6.8~)
---	---	-----------------------------	----------------	-------------	-------------------------------	---

7	72,73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p>○ 판정결과 : 국별/글로벌 TRQ방식, 초과수량 25% 관세 부과, 연 3% 쿼터 증량 방식 *</p> <p>2021.6.25 : 조치 연장 결정</p> <p>* 2024.6.25 : 조치 2년 연장 확정(관보 게재)(무관세 확대 비율 4%→1%로 축소, 일부 국가의 품목 조정 등) *</p> <p>세이프가드 조치 대상품목은 26종(1)열연강판(Non 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2)냉연강판(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3)전기강판(Electrical Sheets)(other than GOES)(4)도금강판(Metallic Coated Sheets)(5)착색아연도강판(Organic Coated Sheets)(6)석도강판(Tin Mill Products)(7)후판(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8)STS 열연(Stainless Hot Rolled Sheets and Strips)(9)STS 냉연(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p>	<p>○ 부과기간 : 2019.2.2 ~ 2026.6.30</p>
---	-------	----------------------	------------	-----	--	--------------------------------------

						<p>Sheets and Strips)(10)STS 후판(Stainless Hot Rolled Quarto Plates)(11)봉·형강(Non Alloy and Other Alloy Cerchant Bars and Light Sections)(12)철근(Rebars)(13)S TS 봉·형강(Stainless Bars and Light Sections)(14)STS 선재(Stainless Wire Rod)(15)선재(Non Alloy and Other Alloy Wire Rod)(16)형강(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 Alloy Steel)(17)강시판(18)레일·궤도(Railway Material)(19)가스관(Gas pipes)(20)중공각관(Hollow sections)(21)STS 무계목(Seemless Stainless Tubes and Pipes)(22)기타 무계목(Other Seemless Tubes)(23)대형 용접관(Large welded tubes)(24)기타 용접관(Other Welded Pipes)(25)냉연강재(26)비합금 강선</p>
--	--	--	--	--	--	--

						합금 강선
8	7307931191,7307931193,7307931194,7307931195,7307931199,7307931991,7307931993,7307931994,7307931995,7307931999,7307998092,7307998093,7307998094,7307998095,7307998098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certain))	반덤핑(규제중)	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 부과기간 : 2019.4.9 ~ 2024.4.11	○ 판정결과 · 한국 : 32.4 ~ 44% · 러시아 : 23.8% · 말레이시아 : 49.9 ~ 75% * 일몰재심 중 (2024.4.9~)
9	2910900005,3824999296,3824999310,3907300005,3907300020,3907300080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반덤핑(조사중)	중국, 한국, 대만, 태국	○ 조사개시일 : 2024.7.1	
10	280469,720211,720219,720221,720229,720230,72029930,72029980,28500060	망간 및 실리콘 합금 원소(Manganese and silicon-based alloying elements)	세이프가드(조사중)	전세계	○ 조사개시일 : 2024.12.19	
11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ABS) 수지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Resins)	반덤핑(조사중)	한국, 대만	○ 조사개시일 : 2024.12.19	

수입금지품목

EU는 제품 안전, 위생, 유기농 제품, 의약품, 환경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약물 전구체(마약류), 일부 멸종 위기 동식물(예: 물개 제품), 불법으로 수확된 수산물 및 목재, 문화재 등이 있다. 이 외, EU는 흉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일부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 중으로,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입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 광물 (2021.1.1 ~ 적용 중)

EU는 유혈 분쟁 근절을 위해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가 채굴 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한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 2021년부터 4대 광물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2021.7.3 ~ 적용 중)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지침(EU) 2019/904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 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 막대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발효, 2년간의 회원국별 국내법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 산림전용 관련 제품 (2023.6.29일 발효, 이행 시기 연장 논의 중)

산림전용 관련 제품의 역내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의 전용·황폐화와 관련된 원자재 및 제품의 EU 역내 시장의 출시 및 수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방지법(EUDR, Regulation (EU) 2023/1115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이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었다. 규제에 따라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콩, 목재 등의 원자재와 그의 파생상품을 역내 생산, 판매,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새로이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사를 시행하고, 관할 당국에 실사 선언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 원안은 대기업에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에는 2025년 6월 30일부터 규제를 적용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0월 2일 EU 집행위원회가 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용일을 1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이행 연기 제안은 EU 이사회 승인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유럽의회가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EU 입법기관 간 재논의될 예정이다. 2024년 연내 협의가 완료되고 연기 제안이 최종 승인을 받으면 적용 시기가 1년 연장되어 중·대기업에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러제재 관련 러시아산 제품

EU는 러·우 사태 이후 대러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의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2024년 6월 25일부로 제14차 대러제재가 시행 중으로, 러시아산 석유, 석탄, 액화 프로판 및 일부 구리, 선철, 다이아몬드 등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14차 대러제재에는 처음으로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LNG)를 겨냥한 조치가 포함되어, 러시아산 LNG의 수입 제한을 포함하여 러시아산 LNG 재수출을 위한 EU 항구 이용 금지, 러시아 내 LNG 프로젝트에 EU산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러시아산 제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회 방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 강제노동 결부 제품 (입법 진행 중)

EU는 역내 수입 및 유통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에 대해 EU 역내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 중이다. 원산지 및 기업 규모 불문,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결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수입과 유통이 금지될 전망이다. 2024년 10월 22일 유럽의회가 법안 확인 작업을 거쳐 승인을 완료, 향후 EU 이사회 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규정 적용까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인증제도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CE-RoHS 인증, E-mark/e-mark, CE-MDR 인증, IVDR 인증, 비료 관리 신 법규 (EU 2019/1009)에 따른 CE 등이 있다.

CE 마크 (시행 중)

○ (개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1993년 7월 22일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필수인증으로 도입된 CE마크는 해당 제품이 안전과 건강,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적용 대상) CE 마크는 완구류, 전자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된다. CE마크 인증이 필요한 세부 품목 리스트는 다음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인증 절차) CE 인증 절차는 제품별로 해당하는 세부 지침에 따라나 통상적으로 CE인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즉 해당 제

품이 어떤 CE 인증 제품군에 속하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제품군에 맞는 CE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군에 따른 필수 안전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제품 시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련 인증 지침에서 요구하는 시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조업체는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기술서는 제품이 표준 혹은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술 문서는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위치한 EU 회원국의 공용어 혹은 회원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쳐 제품의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증서에 서명할 수 있고, 이후 CE 마크 부착이 가능하다.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하며,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CE 마크는 제품 내 식별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나, 제품 특성상 불가능 할 때는 제품의 포장재나 사용 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인증 획득 소요 기간 또한 제품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인증 획득 소요기간은 대략 약 4~8주가 소요된다.

- (유의 사항) 기계류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EU 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대리인, 물류업체를 대리인으로 선정, 상품 규정 준수 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대리인은 역대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선언서 또는 기술문서를 제공하고, 제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CE-RoHS 인증 (시행 중)

- (개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에 의거,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RoHS 지침 내, 요건을 충족해야 CE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동 인증은 단일 물질을 기준으로 총 10가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최대 허용 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납(Pb), 수은(Hg), 육가 크로뮴(Cr6+), 폴리브롬화 비페닐 내염제 PBB(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 PBDE(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 비스 프탈레이트 DEHP(Bis(2-Ethylhexyl) phthalate),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BBP (Benzyl butyl phthalate), 디부틸 프탈레이트 DBP (Dibutyl phthalate),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IBP (Diisobutyl phthalate) 등 9개 유해물질은 최대 허용 농도가 0.1%인이며, 카드뮴(Cd)의 최대 허용 농도는 0.01%이다.

- (적용 대상) 의료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케이블 및 하위 부품, 소모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군용 장비, 우주 발송 장비 등은 제외된다.

- (유의 사항) RoHS 부속서 3에 따라 일부 제품에 제한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예외 조항 만료일을 명시하고 있다. RoHS의 예외 조항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제·개정이 진행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 조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ha.europa.eu/exemptions-art-4-restrictions-rohs>

E-mark 및 e-mark (시행 중)

- (개요) E-mark는 유럽연합 및 일부 비EU 국가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및 차량의 안전, 환경 신화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표준으로 자동차 부품 및 차량의 자유로운 유럽 내 시장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e-mark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및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표준으로 유럽 내 시장에서의 자동차 부품 및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기준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U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용 전기/전자 제품은 E-Mark 및 e-mark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 (적용 대상) 자동차(승용차, 상용차, 트레일러)를 포함해 자동차에 장착되는 부품

- (인증 절차) E-mark/e-mark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서, 일반사항(제품명, 제조자명, 주소, 명판, 제품 사양 및 기능 등), 제품 도면, 제품 메뉴, 제품 샘플, 제조공장의 ISO9001 인증서 등을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다. 신청된 내용은 생산 절차와 제품 검사, 공장 심사 등을 진행하는 시험 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시험 기관은 EU 각국 교통부가 인정한 곳이어야 하며, TÜV Sud, ICR, IEC 등이 있다. 시험기관 심사 후 EU 회원국 교통부 허가를 받아 E-mark/e-mark 및 인증번호를 부여받으며, 마크 옆에는 EU 회원국별 고유 코드 번호가 명시된다. 통상 해당 인증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 (유의사항) E-mark/e-mark 인증은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으나, 제품 사양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증 기관에 변동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사후 검사가 진행되나, ISO9001을 획득한 공장의 경우 공장 심사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CE-MDR 인증 (시행 중)

- (개요) 유럽 의료기기 규제(MDR)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인증이다. 2021년 5월 26일 이후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은 이전의 MDD(Directive 93/42/EEC for Medical device)를 대체하며,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따라 엄격한 기술 문서 작성 및 품질 관리 시스템(QMS) 구축을 요구한다.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안전성과 성능 요건, 임상 평가 및 위험 관리 보고서를 포함해야 하며, 승인 기관에서 검토 후 CE 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인증은 유럽 시장에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데 필수적이며, 강력한 사후 감시 체계를 요구해 지속적인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 (적용 대상) 모든 의료기기
- (적용 시기) MDR 규정 제120조 제2항의 개정으로 MDD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의료기기 품목별로 상이한 MDR 전환 유예기간을 가진다. 단 설계 및 의도된 사용 목적 상 중대한 변경이 없어야 하고, 2024년 5월 26일 이전에 인증 기관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년 9월 26일 이전에 인증 기관과 계약이 되어야 한다.
- (맞춤형 3등급 이식형 의료기기) 2026년 5월 27일 이전 인증 획득
- (고위험 3등급 의료기기, IIb 등급 이식형 의료기기) 2028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 (저위험 1등급, IIa등급, IIb등급 의료기기) 2029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 (인증절차) 제품 등급별 소요 기간이 상이하나,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된다. 인증을 위해서는 제품별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제품의 일반적 설명, 디자인 및 제조 정보, 위험관리,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증거 등을 포함한 기술문서를 작성한다. 다음 단계로 제품 분류 및 적용 규정 확인이 필요한데, 이 경우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무균, 측정, 침습성으로 분류, 각 분류별로 적용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술문서 및 공장심사(임상자료 포함)를 거쳐 품질관리시스템 심사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 (유의 사항) 인증서 발급 후 매년 정기적인 사후 심사가 필요하며, 인증 규정, 절차, 비용 등 정확한 인증 취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 및 제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한 뒤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IVDR 인증 (전환 기간)

- (개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체외진단의료기장치침(IVD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을 체외진단의료기기규정(IVD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Regulation)으로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IVDR은 기존 IVDD를 대체하여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CE 마크가 있는 체외진단기기의 제조업체는 전환 기간 내에 등급 분류에 따라 IVDR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 (적용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유형을 위험 등급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전환 기간 내 EU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적용 시기) 2017년 IVDR 발효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을 위해 2024년 2월 21일 EU 이사회는 IVD, 특히 D 등록 의료기기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IVDR 일정 개정을 승인했다. 연장된 전환 기간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아래 등급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기관을 접촉하고, IVDR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단, 아래의 연장된 전환 기간은 2025년 5월 26일 이전까지 IVDR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QMS)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A등급(멸균), B등급) 2027년 5월 26일 이전 인증기관 접촉, 2030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 (C등급) 2026년 5월 26일 이전 인증기관 접촉, 2029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 (D등급, CE 인증제품) 2025년 5월 26일 이전 인증기관 접촉, 2028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 (인증 절차) 심사, 평가, 시험, 검사 및 규제 문서 발행
- (유의 사항) 제품 분류, UDI(고유식별코드) 전략 설정을 위한 작업 그룹 구성, 갭 분석, 품질관리시스템(QMS)의 사항 조정(특히 시판 후 감시 및 위험관리에 중점), 기술문서 구비(특히 성과 평가 및 임상 증거에 초점)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비료제품 CE 인증

EU 위원회는 EU 규정에 적합한 비료를 EC 비료(EU fertilising products)로 규정하는 유럽 위원회 규정 (EC) 2003/2003을 폐지하고 비료 제품에 CE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 '비료 제품의 EU 시장 입수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칙 (EU) 2019/1009'에 따라 비료 제품(석회 비료, 토양 개량용 비료, 식물 성장 촉진제, 식물 성장 억제제, 생물 자극제, 비료 혼합물)은 CE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6년 3월 EU 순환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최초로 제출됐으며, 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무기질 비료의 생산과 유통을 낮추고 유기질 및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비료를 대량생산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데 있다. 2022년 7월 16일부터 현행 규정 (EC) No 2003/2003은 완전 폐지되고 CE 인증에 관한 규정 (EU) 2019/1009로 대체되어, 현재 EU 국가에서 비료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은 CE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EU 비료 CE 인증 모델은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비료 제품의 기능 분류(PFC) 및 원료 분류(CMC)에 따라 인증 유형이 결정된다.

- PFC 분류:
 - PFC 1: 비료(유기비료, 유기-광물비료, 무기비료)
 - PFC 2: 석회토양개량제(주로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칼슘염과 마그네슘염)
 - PFC 3: 토양 개량제(유기 토양 개량제, 무기 토양 개량제,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토양 구조 및 미생물 활성

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 PFC 4: 재배 기질
- PFC 5: 억제제(질화 억제제, 탈질소 억제제, 요소 억제제)
- PFC 6: 식물 생물자극제
- PFC 7: 혼합 비료
- o CMC 분류:
 - CMC 1: 원료 및 혼합물
 - CMC 2: 식물, 식물의 일부 및 식물 추출물
 - CMC 3: 퇴비
 - CMC 4: 신선 식물의 부속 재료
 - CMC 5: 신선 식물 재료 이외 재료의 부속 재료
 - CMC 6: 식품 산업의 부산물
 - CMC 7: 미생물
 - CMC 8: 영양 폴리머
 - CMC 9: 영양 폴리머 이외의 폴리머
 - CMC 10: EC Regulation 1069/2009 규정에서 유래한 제품
 - CMC 11: 2008/98/CE 디렉티브에 부합하는 부산물
- o 인증 모델: Module A, Module A1, Module B+C 및 Module D1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인증 모델에 따라 요구 사항과 절차가 다르다. Module A 외에 다른 세 가지 인증 모델은 EU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NB에서 테스트받아야 하며, 시험 보고서와 CE 인증서는 NB에서 발급한다.

TBT

EU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산업계에 걸쳐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제정) 중으로 산업별로 해당하는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 9월 이후로는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을 사용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REACH (시행 중)

- o (개요) EU는 화학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역내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EC 1907/2006)를 2007년에 도입했다. 종래 2023년 말로 예정되었던 EU 화학물질관리규정 개정안 발표가 연기되었으며, EU 집행위 업무계획에서도 REACH 개정안 발표가 제외되며 2024년 6월까지 추진하려던 개정안도 포기 되었다.
- o (적용 대상)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취급하는 모든 단일 물질,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 내 단일 물질, 고분자 단량체(고분자에 결합한 단량체 또는 개시 물질 중 2%), 완제품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o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 등록: 연간 1톤 이상의 제조 및 수입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와 수입자 또는 역내 대리인은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을 기록한 등록 서류(Technical dossier)를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10톤 이상을 취급할 경우, 추가로 안정성 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ECHA의 검토 후, 승인되면 등록비를 지불한 뒤, 신고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 평가, 허가 및 제한: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 또는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은 우선 평가 대상으로 ECHA의 평가에 따라, 추가 조치 없이 시장 유통, 추가 정보 요청 및 재평가,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이라도 제조 수입자 사용처 등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 허가 물질로 분류될 경우, 주기적으로 ECHA의 허가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한 물질은 물질별로 출시 및 유통이 금지되는 제한 조건이 부여된다.
- o (유의 사항) 등록 서류가 미비한 경우, ECHA는 등록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한 물질이 추가되는 추세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미세플라스틱이 제한 목록에 추가되어 2023년 10월 17일자로 적용되어, 용도와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 폼알데하이드 및 그의 방출제에 대한 배출제한이 2023년 8월 5일자로 발효되었다. 제조사는 발효 3년 후, 차량 제조사는 발효 후 4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Annex X V II (제한) 물질 목록 개정 관련 고시(EU 2024/2462)가 고시일 2024년 9월 19일, 시행일 2024년 10월 10일자로, Entry 79 신규(PFHxA, ist salts and related substances)가 추가되었다.

에너지 라벨링 (시행 중)

- (개요) 에너지 사용 제품에 에너지 효율에 등급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라벨로, 기존의 에너지 라벨은 A+++~D등급(10등급)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으나, A등급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별력이 부족해져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 A~G등급(7등급)으로 변경한 개정안을 2021년 3월부터 일부 제품군에 우선 적용 중이다.
- (적용 대상) 냉장·냉동기기, 와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및 건조기, 조명기기, 텔레비전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제품 등의 에너지 사용 제품
- (유의 사항) 라벨에 QR코드를 추가하여 EPREL(유럽 에너지 라벨링 제품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에어컨, 오븐, 운수기 등의 제품에 확대 적용될 전망으로, 가전별로 에너지라벨 요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 기간 중,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역내로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 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수입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24년 1월부터 전환 기간(2023년 10월~2025년)에 따른 첫 번째 CBAM 보고 의무가 시작되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총 6개 품목의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탄소 배출량
- (유의 사항) 전환기간 동안인 2025년까지는 내재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나, 2026년 본제도 시행 시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내재 배출량 관리와 본 제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전환 기간 중, 보고를 하지 않으면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행위는 CBAM 본격 시행기인 2026년 이전에 법안을 검토하고 세부 법률을 마련하여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관련 산업계는 추후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 (2024년 2월 18일 시행)

- (개요) EU는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지침」을 대체하여,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규제하고 배터리의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gulation)을 제정하여 2024년 2월 18일 시행되었다. 규정 세부 내용은 2024~2028년 내 위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할 예정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적용 대상) 휴대형 배터리, 전기자전거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SLI 배터리(자동차, 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 LMT 배터리(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경량운송수단용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
- (주요 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재활용 원료 사용, 공급망 실사,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이 규정 제93조에 따라 2025년 8월 18일까지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벌 규정과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각 생산 공장별배터리 제품별로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며, 탄소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역내 출시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 2kWh 초과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생산 공장별배터리 모델별로 탄소발자국 선언서가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선언서는 배터리 모델 및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생산 공장의 지리적 위치, 제품의 탄소발자국 총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배터리 제조업체는 휴대형 폐배터리를 2027년 말까지 63% 이상, 2030년 말까지 73%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속서 XII C부에 따르면 폐배터리에서의 리튬 회수 목표는 2027년 말까지 50% 이상, 2031년 말까지 80%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 재활용 원료 사용: 새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비율의 재활용 원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원재료 정보를 기록한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배터리 여권(DBP, Digital Battery Passport): 2027년 2월 18일부터 모든 LMT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여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여권은 부속서 XIII에 따라 배터리의 원료, 탄소발자국 선언서에 명시된 탄소발자국 정보, 재생 원료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2025년 발효 예정)

- (개요) 역내 포장 폐기물 감축하기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개정안이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에서 최초 승인되어 2024년 가을 EU 선거 후 최종 버전이 승인된 후, 2025년 발효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발효 후 18개월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동 규정은 기존의 지침(Directives) 수준이었던 포장폐기물 관련 규제사항들을 법률수준으로 그 효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의 최소 함량과 폐기물의 무게별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의무 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경량 목재, 고무 등 일부 소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일회용 포장재 등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포장재의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전면 금지될 예정인 만큼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식음료, 전자제품, 가전제품, 바닥재, 타이어 등 일상 소비재 판매자부터 산업용 제품 판매자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적용 대상) 산업, 상업, 가정 및 전 분야를 포함한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 재활용 포장재 관련 규정
 -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 규정: 포장재는 재활용성 등급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 비율이 70% 미만일 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시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단, 관할 당국의 통지에 따라,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는 일정 기간 동안 제외(예컨대 특정 의약품 포장, 특정 식품의 접촉 민감 포장 등)된다.
 - 포장재 내 재활용 비율: EU 내 시장에 출시(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포장재 포함) 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비율만큼 포함해야 한다(제조 공장별 연도별 평균으로 계산). 최소 비율은 포장 유형에 따라 다르며, 2040년부터는 최소 비율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포장재의 경우,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관련 대기, 수질 및 토지로의 배출 감소 관련 동등한 규정이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가능하다.
 - 과불화화합물(PFAS) 포함된 식품 포장재 출시 금지: 2026년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를 함유한 식품 포장재의 출시가 금지된다. 단, 집행위는 타 규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본 규정 적용 후 4년 이내에 본 조항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특정 일회용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포장재,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및 소비자의 두 개 이상의 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 병,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는 단체 상품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예컨대 콜레이션 필름 또는 수축 랩 등), 특정 무게 미만의 사전 포장된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식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단, 제한적인 예외 있음), 숙박업소에서 사용되는 샴푸, 로션 등 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일회용 포장재, 초경량 비닐 봉지의 사용이 금지된다(단, 예외 있음).
 - 포장 최소화 의무: 제조자나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상품 포장의 무게나 부피를 상품의 기능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경감하여야 한다. 그룹 포장, 운송 및 전자상거래 관련 포장 시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된다(버블 랩 재료로 채워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
 - 고객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도입 의무: 테이크 아웃 판매 업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 및 불리한 조건 없이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가져와 음료 또는 즉석조리식품을 포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 보증금 반환 제도: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금속 음료 용기를 연간 90% 이상 분리수거 의무 이행을 위한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구축 의무가 부과된다(2029. 1. 1까지).
 - 라벨링 의무 및 보고 의무: EU 공통으로 통일된 라벨 부착 의무; QR 코드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재사용 관련 지침 정보 제공 의무; 녹색 주장 문구 제한(최소 요건 초과 경우 표시 가능); 포장재 제조업체 적합성 선언 의무' EU 내 포장재 출시 전 국가 등록 의무
 - 확대된 생산자 책임: 생산자는 포장폐기물의 수집, 분류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 분담 형식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에코디자인 규정 (2024.7.18. 발효)

- (개요) EU는 2022년 3월,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을 한층 발전시킨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새롭게 제안했다.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이 가전제품 등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적용되었고 주로 에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규정은 그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환경 보호와 순환 경제 촉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제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이 새로운 에코디자인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 (적용 대상) 에코디자인 규정은 부품 및 중간 제품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부품과 중간재, 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식품과 사료, 인체용 의약품, 차량 및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제외된다.

○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요건 부과, 디지털 여권,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계획된 노후화 행위 금지 등

- 지속가능성 요건 부과: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재활용성, 수리 가능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여하여,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 관련 조항을 설정하였다.

- 디지털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DPP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중요한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는 수단을 말한다. DPP에는 제품의 식별 정보, 에코 디자인 요건 정보(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등), 소재, 공급망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QR 코드나 워터마크 등의 데이터 이동 매체(data carrier)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품은 DPP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디지털 제품 여권의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여야 한다. DPP의 세부 사항은 향후 제품 군별로 제정될 위임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위임법에서는 DPP가 적용될 제품군,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DPP의 유효 기간 등이 상세히 규정될 예정이다.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군에 대한 첫 번째 DPP는 2027년 중반 무렵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기업들은 미판매 제품을 폐기할 경우 폐기된 제품의 수량과 무게, 폐기 사유, 처리 방식, 그리고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 관련 정보를 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의류, 모자, 의류 부자재 및 신발(부속서 7A)의 폐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판매 제품 보고 및 폐기 금지 의무는 발효 24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중견기업(medium-sized)은 발효 6년 후부터 적용되고, 중소기업(micro and small)은 적용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경에 우선순위 품목군 설정 등을 포함한 첫 번째 실무 계획(Working Plan)을 발표할 예정으로, 섬유와 철강이 첫 번째 품목별 이행 규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이행 규정은 2027년 중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획된 노후화 행위 금지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을 짧게 만들거나 조기 오작동을 유발하는 제품을 설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유의 사항) 디지털 제품 여권의 경우, 에코 디자인 규정 외에도 배터리, 장난감, 세제, 전자제품 규정 및 핵심원자재법 등의 법에서도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산업군별로 대비가 필요하다.

공급망 실사 지침 (2024년 7월 25일 발효, 2027년 7월 시행 예정)

○ (개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기업활동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 시행 후, 관련 내용 공시의무를 지우는 지침이다. 2024년 7월 25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인 2027년 7월부터는 전세계 순매출이 15억유로(약 2조2500억원)를 초과하고 직원 수가 5천명을 초과하는 EU기업과,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비 EU기업에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3단계인 2029년 7월부터는 전세계 순매출 4.5억유로(6750억원) 및 직원 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EU기업과, EU 내 순매출이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비 EU기업으로 확대된다. 유럽 기업 5400여개가 실사 의무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적용 대상) 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하나, 매출액과 직원 수가 적용 범위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기업에 실사가 적용된다. 또한, 최종 모기업이 단순히 지분만 보유한 경우, 지배 구조상 최종 모기업 하위에 놓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한) 기업이 실사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주요 내용) 실사 지침을 적용받는 기업은 업스트림(제품·서비스의 생산·추출·설계·소싱·원자재 공급 등)에서 다운스트림(유통, 운송, 보관)까지 전체 공급망에 국제인권협약, 아동노동, 최저연령 협약, 수은 미나마타 협약,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관련 스톡홀름 협약 등의 국제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연 1회 공시할 의무가 있다.

○ (유의 사항) 실사 의무 미준수로 피해 발생 시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연 매출액의 5%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반보조금 조사 (시행 중)

○ (개요) EU는 역외국 기업들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령 여부 등을 조사 후, 해당 기업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 불공정 경쟁 방지 및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 중이다.

○ (조사 절차) EU 관보 게재 → 집행위의 조사 개시 → (잠정조치) → 최종 판정 → 조치

○ (조사 기간) 통상 6개월 이상으로 설정되며, 최대 조사 기간은 13개월로 한정된다. 필요에 따라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잠정조치 시, 집행위는 4주 전에 잠정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조사 내용 및 조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혜택(Benefits), 특정성(Specificity)을 모두 충족하는 보조금 수령 여부, 역내 산업의 피해 규모, 보조금과 피해 사실 간 인과관계 등을 조사 후,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유의 사항) 2023년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중국의 반보조금 조사 방침을 발표한 뒤 1년여 만에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모든 전기차에 적용되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가 더해져 부과된다.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중)

- (개요)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은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분야 내 보조금에 대해 2023년 10월 12일부로 사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비 EU 국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EU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해결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EU 입법부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왜곡은 EU 회원국들이 EU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내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반면, 비 EU 국가들은 자유롭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FSR은 특히 M&A 거래와 공공 조달 절차에 중점을 두고, EU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비EU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보조금을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적용 대상) 기업결합은 역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지원액 5천만 유로 초과 기업이며, 공공 조달은 조달가 2.5억 유로 이상 및 지원액 4백만 유로 이상이다.
- (주요 내용) 집행위는 보조금 심사 후,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시, 보조금 환급, 해당 기업의 역내 활동 제한, 특정 투자금지 또는 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며,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 분야에 걸쳐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 (유의 사항) 총매출액의 10% 벌금 또는 일 평균 총매출액의 5% 이행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 시, 사전 신고가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중, 2026년까지 연장)

- (개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 유럽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이다. 2019년 2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 중으로, 2024년 6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EU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6년 중반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2024년 5월 28일).
- (적용 대상)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등 총 26개 품목
- (주요 내용)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 한국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착색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후판, STS 냉연, STS 선재, 형강, STS 무계목, 대형 용접관의 주요 수입국으로 분류되어 국별 쿼터를 할당받고 있으며, 그 외 14개 품목은 선착순으로 글로벌 쿼터가 적용되고 있다.

CPNP 및 PIF (시행 중)

- (개요) EU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화장품 규정(EC 1223/2009)에 따라 마련된 온라인 화장품 신고(Notification) 포털사이트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화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EU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해당 포털에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 전에는 PIF(Product Information File)라고 불리는 기술문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PIF 작성은 역내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에게 의뢰할 수 있다. 국내기업에는 CPNP 등록 또는 인증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전 신고제라고 할 수 있으며, 회원국 차원에서 사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 (적용 대상) EU에 수출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인증 절차) 약 1~2개월 소요
 - RP 지정 및 서류 제출: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를 지정하고 PIF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RP에 제출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 원료별 안전데이터시트, 제품 시험성적서, 안전성 테스트 및 방부력 테스트 결과, 제조 번호, 원산지, 동물실험 테스트 여부, 라벨 및 포장재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는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EU 기준에 맞는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친다. 라벨의 경우,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표기해야 하며, 라벨에 적힌 효과(진정, 주름개선, 미백 등)와 관련된 모든 문구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CPNP에 등록이 가능하다.
 - PIF 작성: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PIF를 작성하며, PIF는 원료, 완제품, 라벨 및 포장재에 대한 정보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로 구성된다.
 - CPNP 등록: CPNP에 제품 등록 후,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유의 사항)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구비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만약을 대비해 RP 측에 PIF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는 것이 권고된다.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으며, 2023년 6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따르면, EU가 일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EU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 개요

EU 회원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 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기존 세관 현대화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신관세법은 세부적 실행 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벨기에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EU 역외로부터 역내 개인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 없이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세관은 개인 택배를 가장한 상업용 판매 제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적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비EU 관세영역에서 벨기에와 같이 EU 관세영역 거주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을 받는 벨기에 거주자는 반드시 EORI 번호(경제운영자 번호)와 VAT(부가가치세) 확인번호가 있어야 한다. 즉, 벨기에 거주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만 상품의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벨기에 거주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보내는 것은 벨기에 관세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세관 적발 시,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벨기에에 보낼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정상 통관 절차를 진행 해야한다.

만약 정식 판매용이 아니라 거래 전 샘플을 보내고 싶을 경우, 관세면제에 대한 이사회 규칙(EC) No 1186/2009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면제 대상에 샘플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통관을 해도 관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EU 관세법 개정안 동향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에 따른 역내 신규 제품 안전 표준 및 의무 부과로 가중된 세관 당국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관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주문일로부터 1일 이내 상품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엄격한 사전 검사 동의기업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각 회원국의 개별 통관 시스템을 대체할 단일 플랫폼(EU Customs Data Hub)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하여,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면 2025년부터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EU의 관세 제도

EU는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결정, 각 회원국 세관 당국에서 징수한다.

EU 관세는 크게 최혜국 관세, 협정 특혜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 최혜국 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한다.

- 협정 특혜 관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한다.

- 일반특혜관세제도(이하 GSP,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개도국 수입품에 특혜관세를 부과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제도로 GSP 일반, GSP+, EBA로 나뉜다. 기존 GSP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작업이 지연되면서 2027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GSP의 개정 작업 중, EU는 역내 불법 이민 문제를 GSP에 연계하여 역내 체류가 거부된 망명자를 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GSP 특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1. 일반 GSP

비 민감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타 품목은 관세를 감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에 적용 중이다.

2. GSP+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들인 스리랑카, 파키스탄, 볼리비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총 8개국에 적용 중이다.

3. EBA(Everything but Arm)

최빈국에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쿼터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캄보디아, 부룬디, 네팔, 르완다, 세네갈, 수단, 토고, 잠비아, 예멘 등 47개국에 적용 중이다.

○ EU의 품목분류 체계

EU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 System) 체계를 기초로 EU 차원에서 세분류한 복합품목분류(CN)와 CN에 기초하여 관세율과 EU 조치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관세율표(TARIC)로 구성된다.

- EU 복합품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CN은 이전에 별도로 공표되던 관세율표와 무역통계품목표를 통일하여 만든 것으로, HS 품목분류표, CN 소호(CN sub-heading)라 지칭되는 품목분류표의 세목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CN 소호와 관련된 류(Chapter)의 주(notes) 등 보충규정을 포함한다. CN은 8자리의 숫자로 구성,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 나머지 7, 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CN은 매년 업데이트되어 관보에 게재된다.

- EU 통합관세율표(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세목을 EU 차원으로 분류하기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EU 통합관세율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조치를 비롯해 농산물의 표준 수입 가격 및 단위가격,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o 관세 과세 기준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송장 가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액 산정 시,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을 반영한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는 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벨기에의 부가가치세는 21%이며,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o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시행 중)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동 규정을 통해 150유로 이하의 저가 상품은 사업자, 운송사 또는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관·부가세 신고는 간소화 시스템(IOSS, Import One-Stop Shop)에서 할 수 있으나,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하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o EU 수입통제시스템2(Import Control System 2)

EU의 수입통제시스템인 ICS2는 EU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도착 전에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EU로 반입되거나 EU를 경유하는 모든 화물은 반입 전에 화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HS 코드, EROI 번호 등을 입력한 사전 신고서(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EU 중앙 서브(STI, Shared Trader Interface)로 전송해야 한다. 전송된 화물 사전 정보는 분석을 거쳐 위험도에 따라 선적 금지, 검사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 결과는 모든 회원국 세관에 공유된다.

ICS2는 2021년 3월부터 항공 특송(Air express)과 항공우편(Postal Air)에 적용됐으며, 2023년 3월부터 일반 항공화물(General Air Cargo), 2024년 6월 3일부터는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ICS2가 도입되는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업체는 2024년 6월 3일부터 전환 기간인 12월 4일까지 해당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ICS2의 두 번째 구현단계에 해당하며 EU,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항공, 해상, 수로를 통한 상품 운송에 적용된다. ICS2의 마지막 구현단계는 모든 운송 수단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는 도로 및 철도 운송에 적용될 예정이다.

o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

EU는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2022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추가적인 연장을 거쳐 2024년 5월 13일 집행위는 무관세 조치를 2025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탕·가금류·계란·옥수수·귀리·곡물·꿀 등의 품목에 한해 품목별 수입량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비상 브레이크가 적용되고 있다. 조건부 무관세 조치 연장은 추후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EU 관세율은 EU 복합품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에 따라 적용한다.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며, 상품 H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에 원하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품목 코드로 조회할 것을 권고한다.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또한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EU 관세법령위원회 결정(conclusions), 품목분류규정(regulations), EU 사법재판소의 판결문(rulings), EU 복합품목분류표(CN), 통합관세율표(TARIC) 정보 등의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 관세총국에서 운영하는 'CLAS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불가리아의 주요 무역항구는 불가리아의 동해안인 흑해에 위치한 바르나(Varna)항과 부르가스(Burgas)항이다. 한국 부산항을 기준으로 바르나 또는 부르가스 항까지 도착에 걸리는 시간은 40~4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부르가스에서 수도인 소피아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바르나에서 소피아까지 고속도로는 건설중에 있다. 부르가스에서 TIR 차량을 이용할 경우 소피아까지 보통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바르나에서는 6~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 주요 공항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은 수도인 소피아에 위치한 소피아 공항으로 해당 공항은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로 나누어져 있다. 제1터미널은 주로 저가 항공사들과 국내선이 취항하며, 제2터미널은 국제선으로 2007년 불가리아의 EU 가입을 시작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소피아 공항은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의 근거리에서 위치해 있으며, 해외 출국 시에는 주로 제2터미널을 활용한다. 기타 바르나와 부르가스에도 공항도 있으나 대부분 국내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항공 물류 허브인 모스크바 공항 이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물류 지연 등 항공 물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유의사항

한국과 불가리아 간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고, 물동량이 제한적이라 불가리아 항구(바르나, 부르가스)까지 직접 노선이 없다. 이에 따라, 서유럽의 함부르크, 로테르담 항구 등에서 1차 선적 화물을 하역 후 다시 불가리아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재하역/선적으로 인해 화물 운송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 불가리아가 2024년 3월부터 부분적인 쟁겐에 가입했다. 그러나 육로는 쟁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경에서의 물류 속도는 빠르지 않다. 또한 최근 홍해 분쟁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해상운송이 어려워지면서 물류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오는 화물의 경우 2~3주의 지연이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 불가리아에서 수입절차를 완료해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불가리아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 법인, 관세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불가리아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약식통관

불가리아에서 약식통관은 샘플품목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송장(AWB), 특사(Courier)발송 송장 및 인보이스만 필요로 한다.

○ 정식통관

정식통관은 불가리아에서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Customs Approved Exporter), CE 인증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는 특정 라이선스 및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

○ 우편통관(EMS)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불가리아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 안에 보내는 품목의 가격과 종류, 그리고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불가리아에서 국제우편물(EMS)를 수령하는 장소는 지역 세관이며 세관 내에 EMS 우편물 수령장소가 있다. 보통 세관의 근무시간 9시부터 17시이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는 우편물 수령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 물품검사 및 보류/압류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0%)는 통관절차 시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전문 통관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통관사에 위임을 해 물품을 통관한다.

○ 통관절차 흐름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등 제세 납부 → 물품 반출

○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상품송장(Commercial Invoice)는 통관에 있어 가장 필수서류이다. 그 밖에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인증수출자 증명서, CE 인증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을 제조사로부터 받아 농림부 내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류 수입허가서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가 없을 시 관세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또한, 기계류의 통관 시에는 세관에서 사용설명서(manual for operation)를 요구하기도 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안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품목별 관세율 정보는 Taric consulta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관세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대부분의 통관절차는 전문 통관사를 이용하며, 전문 통관사를 통해 물품 통관에 대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은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

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RKAS BULGARIA Ltd

주소	Varna Head Office 54, Osmi Primorski polk Blvd Floor 3, Office 10 9000 Varna
전화번호	+359 52 685 520
이메일	exp.sales@arkasbulgaria.com
홈페이지	http://www.arkasline.com.tr/en/varna_arkas_bulgaria.html
비고	해외전용url

○ EUROSPED Ltd

주소	1592 Sofia, 56 Christopher Columbus blvd.
전화번호	+359 2 919 9191
이메일	logistics@eurosped.bg
홈페이지	http://www.eurosped.bg

○ MOBILLE Ltd

주소	30, Tsar Simeon I street, 9000 Varna, BULGARIA
전화번호	+359 52 602 713
이메일	office@mobile.bg
홈페이지	http://www.mobile.bg

○ Vart Ltd

주소	Bulgaria, Varna, South Industrial Area, Odessos PBM Port SA
전화번호	+359 52 696 270
이메일	vart@gmail.com
홈페이지	http://www.vartbg.com

◦ Aksim Ltd

주소	Varna 48 Tsaribrod str., 2nd floor
전화번호	+359 898 75 04 58
이메일	office@aksim.eu
홈페이지	http://www.aksim.eu

◦ UNIMASTERS LOGISTICS PLC

주소	EUROGATE Logistics Park 12 Prodan Tarakchiev Str. BG-1592 Sofia, Bulgaria
전화번호	+359 52 818 008
이메일	customerhub@unimasters.com
홈페이지	http://www.unimasters.com

◦ ORBIT Ltd

주소	16, Prodan Tarakchiev Str. 1540 Sofia, Airport Area, Bulgaria
전화번호	+359 2 970 6300
이메일	orbit@orbit.bg
홈페이지	http://www.orbit.bg

◦ Move One

주소	23 Kom Street 1225 Sofia, Bulgaria
전화번호	+ 359 2 417 1401
이메일	anna.kamenova@moveoneinc.com
홈페이지	https://www.moveoneinc.com/bulgaria/

◦ Scorpion Shipping

주소	18, Parva Balgarska Armia Str., 1220 Sofia, Bulgaria
전화번호	+359 2 9262743
이메일	bblajev@scorpion-shipping.net
홈페이지	http://scorpion-shipping.net/en/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정책)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가리아 투자자와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명시해놓고 있다. 단, 자연인은 토지 취득이 불가하며, 법인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제한 없이 취득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 2014년부터 토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헌법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되며, 국영 기업 사유화 과정의 참여와 주식, 국채, 사채, 기타 모든 유가증권의 취득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관료주의와 빈번한 내각 해산, 열악한 인프라, 빈번한 법률 숙련노동자, 노동력 부족 등은 투자자들의 애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 (자국민 대우와 최혜국 지위)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외국에 등록된 법인, 개인 또는 시민단체)이 불가리아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법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고 명기하고 있다(자국민 대우). 이 원칙은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적법적 형태에 적용된다. 불가리아가 체결한 상호 협정에서 국제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투자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협정국의 시민이나 법인은 동등한 특혜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최혜국 지위). 아울러, 불가리아 투자청은 외국인 투자법 및 법률과 관련한 영문 법률가이드 북을 제공하고 있다.

○ (불리한 법 개정에 대한 법률적 보장)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해 현행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법적 제한을 가할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개정 이전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강제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불가리아 헌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민간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강제 수용은 국가나 지방 정부의 필요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서 법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상기 원칙은 국가 및 지방정부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두 법 모두 강제 수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부동산이나 금전적인 적절한 보상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외국인 회사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호는 외국인투자법에 제시돼 있다. 해당 법은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결해야 할 절대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필요가 있고, 또 동일 지역에 소재한 시장가치가 동일한 부동산으로 보상이 될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중에는 소피아 시당국과 감정평가에 의한 환지 사례가 있으며, 도시 개발이나 국토개발 계획에 의해 환지나 수용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법 전문) 참고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에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법 영문 번역본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 불가리아 투자청 홈페이지 : <https://investbg.government.bg/>

○ (FDI 스크리닝 제도) 2024년 중 FDI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 비 EU투자자나 국가 인프라 투자, 핵심기술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FDI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불가리아에 투자할 수 있다. 200만 유로 이상 투자하거나 불가리아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된다. 단, 한국은 예외적으로 저위험 국가에 해당되어 FDI 사전 승인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 (조세감면) 불가리아 정부는 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불가리아 정부가 허가한 명단에 포함된 고실업 지역, 즉 불가리아 평균 실업률보다 높거나 지자체 실업률이 35%를 넘는 고실업 지역의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사전 및 추후 등록요건과 보고의무가 따른다. 면제/인센티브와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보조금의 가액이 7,500만 레바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보호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세제상 인센티브 포함) 합계가 3년 동안 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조건 심사에 신속성이 부여된다. 2007년 1월 1일부로 불가리아의 법인 소득세는 10%를 유지하고 있다. 고실업 지역에 투자한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에 따라 10% 법인소득세의 완전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고실업 지역에서 수행된 생산 활동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혜택, △단, 매년 수혜 받은 세금공제액은 세금공제를 요청한 연도의 연말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취득자산은 합병이나 회사재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처분해서는 안 된다. 투자지역이 고실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기 5년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지역이 준비과정에서는 고실업 지역이었다가 투자 개시 이전에 고실업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4년간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조금) 불가리아 고용시장에서 청년 및 빈곤층 고용 프로그램과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청(The Employment Agency)은 각 고용인의 고용계약 기간(단, 12개월 이내)에 대해 급여와 고용주가 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기금에 납부해야 할 분할 납부금 그리고 전문능력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비용(6개월 이내)을 부담한다.

- 요건: △ 해당인은 에이전시와 고용주 간의 계약을 근거로 고용청 해당 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군에 복무한 적이 없는 29세까지의 실업자, △ 작업능력이 저조한 29세까지의 실업자, △ 교육을 이수한 사회기관 출신의 청소년, △ 작업능력이 영구히 미흡한 실업자, △ 3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독신부모(양부모) 또는 어머니(양모)인 실업자, △ 50세 이상의 여성과 55세 이상의 남성 실업자

○ (R&D 지원사업 선정) 불가리아 정부는 특히 High-Technology 및 R&D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R&D 분야는 불가리아 정부의 주요 투자 인센티브 수혜 분야 중 하나이다. 투자 장려법에 따라 첨단 산업기술(High-Tech activities of the industry sector) 분야에 4백만 레바 이상 투자시 Class A, 2백만 레바 이상 투자시 Class B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첨단기술(High-tech activities and knowledge based activities of the service sector) 분야의 경우 1백만 레바 이상 투자시 Class A, 0.5백만 레바 이상 투자시 Class B를 받을 수 있다.

○ (투자우대 프로젝트) 불가리아 투자촉진법에 투자우대 프로젝트(Priority Investment Project)를 별도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을 기준으로 불가리아 정부 내각회의를 통해 우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다. 교육, R&D 분야 프로젝트는 투자 금액의 50%, 일반 제조업 분야는 10%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투자 입지 및 토지 상태 변경을 위한 주 세금(State Tax)면제와 별도 입찰과정 없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 시정부 소유 부동산을 구매 가능하다. 공공, 민간, 대학들간의 파트너십 또한 지원하고 있다.

○ (불가리아 투자인센티브 자료) 참고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에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가리아 투자 인센티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불가리아 투자청 홈페이지 : <https://investbulgaria-virtualoffice.com/home>

* KOTRA는 불가리아 투자청과 투자 진출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투자진출 관련 상세한 인센티브는 불가리아 투자청 투자유치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GDPR로 개인정보 대외공개가 어려워 불가리아 투자청 투자유치 담당자 컨택 정보 필요시 KOTRA 소피아 무역관 문의 요망)

제한 및 금지(업종)

○ (제한 분야) 불가리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다. 다만, 무기 제조, 독성물질, 카지노와 같은 사행사업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한과 통제를 받게 된다.

- (외국인 고용 제한) 불가리아는 외국인 고용 쿼터제를 통해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외국인 고용 쿼터 비율은 전체 직원의 10%였으나, 불가리아의 인구 감소, 인력 유출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로 2018년 5월 23일부터 일반기업은 직원의 20%, 중소기업은 35%까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 (투자 금지) 불가리아에서는 따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가스·전기 공급, 공공운송, 안보, 통신망 서비스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또한, 카지노 사업 역시 당국으로부터 제한과 감독을 받는다. FDI 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등에서 진행되는 불가리아 인프라 투자는 금지될 수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목적으로 경제부 산하 불가리아 국가산업공단(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NCIZ)를 운영하고 있다. NCIZ는 불가리아 전역 주요 거점 내 10개 산업 공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6월 기준 8개 산업 공단이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4개 산업 공단은 개발 중이다.

- 운영 중인 산업단지/특별경제구역(8개)

- Sofia-Bozhurishte Economic Zone, Industrial and Logistic Park - Burgas, Industrial zone Vidin, Free Zone Ruse, Industrial Zone Svilengrad, Industrial Zone Zagore, Transit Trade Zone Varna, Industrial Zone Telish 등

- 개발 중인 산업단지/특별경제구역(5개)

-Industrial Park Suvorovo - Varna West, Sofia West Industrial Park, Industrial Zone Kardzhali, Industrial Park Karlovo 등 4곳 개발 중

산업단지

- Industrial Zone Telish

규모	2,036,638m ²
위치	Pleven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immediate proximity to the main road Sofia-Varna - On the main road Sofia-Ruse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ciz.bg/en/projects/industrial-zone-telish-62.html
-----------	---

○ Transit Trade Zone Varna

규모	104,000 m ²
위치	Varna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nciz.bg/en/projects/transit-trade-zone-varna-67.html

○ Industrial Zone Zagore

규모	115,000 m ² ;
위치	Stara Zagora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km to Trakia highway - On the road Stara Zagora - Burgas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nciz.bg/en/projects/industrial-zone-zagore-65.html

○ Svilengrad Economic Zone

규모	70,000 m ² ;
위치	Svilengrad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 strategic location, next to the borders with Turkey and Greece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nciz.bg/en/projects/industrial-zone-svilengrad-64.html

○ Free Zone Ruse

규모	370,235 m ²
위치	Ruse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 800 m to the East of Danube Bridge connecting Bulgaria and Romania - Right next to the port of Ruse - the biggest river port in Bulgaria - Junction of Pan-European Transport Corridors No.VII and No.IX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nciz.bg/en/projects/free-zone-ruse-60.html

○ Industrial zone Vidin

규모	308,627 m ²
위치	Vidin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 the bank of the Danube river next to Danube Bridge - 2, a freight port, and a ship terminal - Located on two borders - land with Serbia and river with Romania - Junction of Pan-European Transport Corridors №IV and №VI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nciz.bg/en/projects/industrial-zone-vidin-59.html

○ Industrial and Logistic Park - Burgas

규모	238,240 m2
위치	Burgas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rt of Burgas - 4 km - Highway Trakia - 4 km - Burgas Airport - 9 km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nciz.bg/en/projects/industrial-and-logistic-park-burgas-66.html

○ Sofia-Bozhurishte Economic Zone

규모	2,983,692 m2
위치	Sofia
임차료	별도 협의

<p>관할기관 및 연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fax) - 홈페이지: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 Immediate proximity to major international roads and EU transport corridors. - Sofia City Center - 15 km / Sofia Airport - 23 km - Next to the international road connecting Europe with Turkey - 5 km to a highway bound for Greece - 2 km to a highway bound for Serbia - 30 km to a highway bound for the Black Sea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www.nciz.bg/en/projects/sofia-bozhurishte-economic-zone-58.html

<자료원 : 불가리아 산업공단(<http://nciz.bg/en/>)>

주요 지역별 여건

○ 흑해 연안 클러스터

바르나(Varna)와 부르가스(Burgas) 등 흑해 연안에는 물류와 정유업, 중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부르가스에는 '룩오일(LUKOIL)' 과 같은 대형 정유소가 위치하고 있다. 바르나에는 불가리아 최대의 조선소가 조업하고 있기도 하다.

○ 트라키아 경제 구역 클러스터(Trakia Economic Zone) (플로브디프(Plovdiv))

플로브디프 지역은 불가리아에서 두번째로 큰 대 도시권이다. 불가리아의 중심에 위치해있으며, 소피아에서 약 한시간 반정도 거리에 있다. 이곳에는 트라키아 경제구역이라는 특별 경제 구역이 조성되어 있다.

소피아와 부르가스를 잇는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플로브디프 공항을 통해서도 이동 할 수 있다.

물류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의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카우플란드(Kaufland Bulgaria), 에이비비(ABB Bulgaria), 한온시스템(Hanon System), 프로플링크(Proflink), 티비티(TVT) 등의 기업들이 운영중이다.

○ 소피아(Sofia) 수도권

수도인 소피아와 주변의 소피아주는 각 기업의 본사와 IT 기업, 연구소 등이 포진해있다. 플로브디프, 부르가스, 세르비아, 그리스를 잇는 고속도로와 소피아 공항, 철도역 등 기본 인프라가 훌륭한 편이다. 도시 내 4개 호선의 지하철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소피아에는 비즈니스파크(Business Park)에 글로벌 기업들의 지사들이 입주해있으며, 주변 산업 단지에는 제이와이에스케이(JYSK), 비에이치티씨(BHTC), 멀티백(Multivak), 라이스울프(Reisswolf)등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소피아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도브로슬라브치(Dobroslavtsi) 지역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기도 하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 2023년 외국인의 불가리아 직접 투자는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
- 2023년 불가리아인의 외국 투자는 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 불가리아는 투자유치 중점 분야를 매년 선정, 적극적인 투자유치 추진중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분야 등이 있다.
 - (자동차) 자동차 분야는 매년 8.6%의 산업 성장을 기록, 270개 이상의 기업과 약 67,000명 이상의 산업 종사자 보유
 - (정보통신) ICT 분야는 매년 39.2%의 채용 증가, 23.1% 투자액 확대, 19.1%의 산업 성장을 기록
 - (화학 바이오) 화학, 바이오 분야는 매년 3.4% 생산성 성장, 4% 투자액 증가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023년 대 불가리아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국 (단위 : 유로)
 - 1위 : 스위스 (7.2억 투자)
 - 2위 : 오스트리아 (4.9억 투자)
 - 3위 : 네덜란드 (3.8억 투자)
 - 4위 : 벨기에 (3.5억 투자)
 - 5위 : 헝가리 (3.4억 투자)
 - 6위 : 러시아 (1.6억 투자)
 - 7위 : 몰타 (1.6억 투자)
 - 8위 : 바하마스 (1.5억 투자)
 - 9위 : 이탈리아 (1.3억 투자)
 - 10위 : 폴란드 (1.3억 투자)

[출처 : 불가리아 중앙은행, 2024년 11월 기준]

국별 투자현황은 중앙은행 자료 활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1835	3397	1794	2771	3913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 2023년 불가리아 투자진출 주요국 (단위 : 유로)

- 1위 : 루마니아 (9,200만 투자)
- 2위 : 리히텐슈타인 (8,520만 투자)
- 3위 : 사이프러스 (4,430만 투자)
- 4위 : 알바니아 (4,410만 투자)
- 5위 : 멕시코 (3,990만 투자)
- 6위 : 독일 (3,880만 투자)
- 7위 : 몰타 (3,410만 투자)
- 8위 : 튀르키예 (3,010만 투자)
- 9위 : 네덜란드 (2,950만 투자)
- 10위 : 그리스 (2,470만 투자)

[출처 : 불가리아 중앙은행, 2024년 11월 기준]

국별 투자현황은 중앙은행 자료 활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449	246	318	561	598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2023년 기준 한국의 對불가리아 누적 투자액은 약 2억3,254만 달러로 전년대비 1백만 달러가 증가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불가리아 소프트웨어 기업에 지분투자했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2	3	3	2	3	2
2023	1	1	1	1	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한국의 對불가리아 투자는 태양광 발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투자가 전체 누적 투자액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0	1	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2	1	2
도매 및 소매업	1	1	0	1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정보통신업	1	1	1	1	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화승코퍼레이션(Hwaseung Corporation)

진출연도	2023
진출형태	현지 법인 설립
업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생산 (고무부품 관련)
모기업명	화승엔터프라이즈(Hwaseung Enterprise)

○ 에스디앤(SDN Company Ltd - Branch in Bulgaria)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 서비스법인, 해외지사 - 한국남동발전과 50:50 합작투자하여 불가리아 법인인 ASM-RES를 설립 운영 중
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취급분야	태양광 발전
모기업명	에스디앤

○ 한국남동발전(Korea South East Power)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 에스디앤과 50:50 합작투자하여 불가리아 법인인 ASM-RES를 설립 운영 중
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취급분야	태양광 발전
모기업명	한국남동발전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불가리아 상법은 외국인의 법인체 설립 또는 기존 법인체의 지분 인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불가리아 상법(Trade Act)에서 정한 법인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불가리아 상법에서 정한 법인의 형태로는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지분부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s with shares) 그리고 개인사업자(sole traders)가 있다. 단, 외국인인 개인이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참가하거나 개인 사업자(sole traders)로 등록을 위해서는 불가리아 내 거주지가 필요하다.

지사

외국의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이 본국의 법에 의거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불가리아에 지사를 등록할 수 있다. 지사는 지방법원의 상업등기부에 기재된다. 외국회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지사는 독립체로 간주하고, 따라서 별도의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사 설립은 외국 회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최소납입 자본금은 없으며 별도의 기업 지배구조를 요하지 않는다. 지사의 자산과 부채는 모기업의 것으로 간주한다.

연락사무소

본국의 법 조항에 따라 영업활동의 허가를 받은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불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들은 별개의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리아 법에서 정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 연락사무소 설립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자 받기가 용이해 지기 때문에 불가리아 내 법인 설립 전 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전 투자 검토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표사무소는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되며 마케팅,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법인/지사/연락사무소 설립 시 유의 사항

은행이나 보험 영업, 투자 펀드, 관리 회사, 투자 중개업, 특별 사업권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상 기 유형의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정부 기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현지에서 투자 진출 지역 내 부동산 등을 매입을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한 바, 대부분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나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형태의 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편인데,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완료 후 철수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인 청산 절차가 간편한 TAX Entity라는 형태의 법인을 세워 세금 관계 업무를 처리한다. 합작 투자 형태로 현지 투자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 동업자와의 이해관계, 수익 배분 문제 등 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라도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대표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인력 채용, 세금 납부 등의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을 세우는 것이 좋다. 나아가, 현지법인 책임자를 한국 모회사의 파견직원으로 할지 아니면 현지인을 책임자 로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만약 현지인을 책임자로 선정할 경우, 추후 발생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은행 인출 금액의 상한선을 마련해 두거나 대금인출이나 결제 시 한국인 대표자의 결제와 같 은 보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불가리아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일부 수동적인 측면이 있으며 공무원과 행정 업무 처리시 통역원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은 편이다. 또한, EU 가입 이후 전문 인력들의 서유럽 국가 유출이 되면서, 대형 제조공장의 경우, 구인난이 존재한다. 나아가 불가리아내 거주 교민과 유학생 수가 많지 않아 불가리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한국인 직원을 수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소피아대학 등 일부 대학 내 한국어 전공학과 학생들이 있어,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아래는 KOTRA 소피아 무역관으로 그간 접수된 불가리아 투자진출 기업의 애로사항들로 투자 진출 검토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내각 해산과 조기 총선이 잦아 일부 프로젝트 추진에 불안정성이 있음
- 전자정부 도입이 지연되면서 행정 서비스 이용시 수기 입력이 많은 편임
- 주재원 파견시 본인 및 동반가족 거주비자 발급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임(한국에 다시 귀 국하여 현지 거주비자 발급을 대기 후, 재입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한국 대비 다양한 휴가 제도가 있어 노무 리스크를 고려 해야함
- EU의 공급망 실사법, 탄소 감축 제도, GDPR 등 엄격한 ESG 관련 제도가 추진될 예정인 바 가이드라 인 수립이 필요함

3) 분쟁해결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외국에 등록된 법인, 개인 또는 시민단체)이 불가리아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법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자국민 대우)고 명기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 정부는 경제부 산하 불가리아 투자청 (<https://www.investbg.government.bg/en>)을 설치/운영하며 세금/노무/법률 관련 투자 진출 지원을 통 해 투자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은행 계좌개설

유럽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불가리아 은행은 기업이 현지화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법적 서 류와 실 소유자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번거와 공증을 해야하는 번거 로움이 있으며 은행이 이를 빈번히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 제출 시에는 서류 검토비용을 청구하 며, 반려할 경우 해당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수정 사항을 별도로 공지하고 있지 않아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수정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현지의 유망한 변호사와 함께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며, 현지 법인을 인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식 액면가치는 최소 BGN1 이상이다.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출자자는 1인 이상의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하다. 최소 자본금은 5만 레바(약 26,000유로) 이상이다. 다만 사업영역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 1,000만 레바, 생명보험 200만 레바, 재산보험 300만 레바, 재보험 400만 레바, 투자회사 50만 레바, 민간의료보험 200만 레바, 민간 연금 300만 레바 등이다.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등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익년 3월 말까지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회사자본 출자자는 1인 이상이며 출자자의 책임은 출자자 지분에 한한다. 출자자는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하다. 최소 납입 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며 이사회 구성이 의무사항이며 회의는 연 1회 개최되어야 한다. 주주가 1명인 경우 회사의 명칭은 EOOD를 사용하며, 2인 이상의 경우 OOD를 사용한다. 차년도 3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Stoychev, Boykov & Partners

전화번호	+359 886 161 676
주소	Sofia Center, Evlogi i Hristo Georgiev Blvd 107, 1504 Sofia
홈페이지	https://www.sbplegal.bg/en/
이메일	nikolay.boikov@sbplegal.bg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한국 기업 자문 이력이 있는 로펌

◦ CMS

전화번호	+359 897 860 421
주소	Landmark Centre, 14 Tzar Osvoboditel Blvd. Floor 1, 1000 Sofia
홈페이지	https://cms.law/en/bgr/

이메일	kostadin.sirleshtov@cmslegal.bg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률과 세무, 경영 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로펌

◦ Logos law firm

전화번호	0700 70 020
주소	Vitosha Blvd 94, 1463 Sofia Center, Sofia
홈페이지	fbclogos.com
이메일	ageorgiev@fbclogo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한국기업의 불가리아 법인 설립 지원 경험 보유

◦ Active Consult

전화번호	+359 895101818
주소	1 Business Park Sofia Str., building 4, groundfloor, Mladost 4, Sofia 1766
홈페이지	https://activeconsult.net/?lang=en
이메일	office@activeconsul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한국기업의 불가리아 법인 설립 지원 경험 보유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 외환관리: 불가리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해 2000년 1월 1일부터 국제환 거래를 자유화했으며, 동법에 의해 내외국인의 외환 반·출입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정히 납부한 후 외국 통화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투자 수익, △ 국가적 필요에 의해 수용된 투자의 보상금, △ 투자 종료에 따른 청산금, △ 투자물 판매 대금, △ 행정 소송의 결과로 수령한 금액

○ 2002년부터 고정환율제 시행에 따라 1유로(=1.95583BGN)로 고정되어 있다. 불가리아의 불안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금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고정 환율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 자회사 등은 환율 리스크가 적다.

- 2020년 7월 10일, 불가리아가 유럽 환율조정제도(Exchange Rate Mechanism II, ERM II) 가입했다. 불가리아는 2009년부터 유로존 가입의 전 단계인 ERM II에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금융위기, 유럽발 경제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지연되었다. 유럽 집행위는 2018년에 불가리아가 ERM II 가입을 준비를 승인하였고 당초 2019년 6월 ERM II에 가입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중앙은행의 현지 은행 대상 건전성 심사에서 일부 은행이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입이 무산됐다. 불가리아는 해당 현지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ERM II 가입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7월 10일 ERM II에 가입을 완료했다.

* 유로존(Eurozone):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

** 환율조정제도(ERM II):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조절 장치. 자국 통화와 유로화의 변동 폭을 $\pm 15\%$ 로 제한함. 불가리아가 ERM II에 가입 이후 최소 2년 이상 현지화 레바(Lev)와 유로화 간 적정한 환율을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유로존 가입이 가능함.

○ 불가리아의 ERM II 가입은 불가리아의 통화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어 외국인의 현지투자, 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리스크를 낮춰 향후 불가리아의 무역,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가리아가 ERM II에 성공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스탠다드앤 푸어스(S&P) 등 신용등급 평가기관이 불가리아의 신용등급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경기 악화로 현행 BBB등급을 유지했다.

외환 규제

외화 송금(대외송금): 불가리아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나 EU 역내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이라면 불가리아 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1 = BGN 1.79 (중앙은행 24년 4월 7일 기준 환율)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833.1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75.7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사무직 초임: 불가리아 학력별 연봉(2018년 기준)의 학사 졸업자(Higher - professional bachelor degree) 연봉(BGN 13,031)을 12개월로 나눈 수치에 18~22년 기간 물가상승률 (19년 3.8%, 20년 0.1%, 21년 7.8%, 22년 13% 23년 8.5%)을 반영하여 추산한 수치 ○ 고졸-생산직 초임: 불가리아 학력별 연봉(2018년 기준)의 고교 졸업자(Upper Secondary) 연봉(BGN 10,569)을 12개월로 나눈 수치에 18~21년 기간 물가상승률 (19년 3.8%, 20년 0.1%, 21년 7.8% 22년 12.4% 23년 8.5%)을 반영하여 추산한 수치 * 학력별 연봉 조사는 매4년마다 발표되며 조사기준일(2024년 4월) 2018년이 가장 최신 자료다. ○ 불가리아 학력별 연봉 통계 조회: https://infostat.nsi.bg/infostat/pages/reports/query.jsf?x_2=1789 ○ 최저임금: 933BGN/월 (2024년 4월 1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는 한국과 달리 월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산출 - 1일 8시간 근무,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BGN 임 <p>https://postedworkers.gli.government.bg/en/19/minimum-wage/ 참조</p>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불가리아에서 고용계약은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최대 6개월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이내에는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가능하며, 수습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식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고용계약서 체결 이후에는 1주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고용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레바에서 1,500레바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월 임금 지불 이후에는 익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기 계약직 채용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현지법상 단기 계약직 채용 계약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며, 계약의 갱신은 1회만 가능하다. 만약, 해당 단기 계약 직원의 계약이 3년 이상 또는 계약 갱신이 1회 초과될 경우, 고용자는 해당 직원의 근로 안전성을 위해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채용해야 된다.

근로시간

대부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근무시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일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공장의 경우 7~15시 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 서머타임 실시 기간에는 사업체에 따라 8:30 출근 5:30 퇴근과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휴가

고용계약 후 8개월 근무 이후 최소 20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 여성의 경우 135일간 사회 보장 당국으로부터 9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후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보편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병가, 국가시험 휴가, 학생의 경우 시험 휴가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

현지법에 따르면 직원 잔여 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 최대 10일까지 차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이월된 휴가는 무기한 연기

되지 않으며 차년도 상반기에 모두 소진해야한다.

해고

고용계약 해지 시 30일에서 3개월까지 사전 통지 대상이다. 보통 관행상 30일 사전 통지가 시행되고 있다. 근무 태만, 사내 규정을 위반한 사례,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 경우, 경고 이외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시, 관련 서류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

불가리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퇴사의 경우 퇴직급여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지 관례상 1개월 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특히, 퇴직일 기준 3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보상해줘야 하는 등 퇴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 등을 통한 퇴직 비용 재확인이 필요하다.

단,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6개월 치의 급여를,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2개월 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 건강보험(Medical Insurance) 부담률: 8%
- 고용주(Employer) 4.80% + 피고용자(Employee) 3.20%

고용보험

- 고용보험(Social Insurance) 부담률: 19.3%
- 고용주(Employer) 10.92% + 피고용자(Employee) 8.38%

산재보험

- 산재보험(Safety Insurance) 부담률: 0.4%
- 고용주(Employer) 0.4% + 피고용자(Employee) 0%

국민연금

- 국민연금(Pension) 부담률: 5.0%
- 고용주(Employer) 2.8% + 피고용자(Employee) 2.2%

기타 설명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연금 등을 포함한다. 고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보장세 담당 기관(불가리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불가리아 내에 근무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사회보장에 가입해야 하며 이 사회보장세는 모든 위험을 커버한다. 사회보장세는 2004년까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75:25의 비율로 납부했으나 2010년부터는 부담률이 약 60:40으로 변경 및 조정됐고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의료보험(보험료 8%)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세율은 피고용자 총 급여의 약 15% 내외이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에 의해 모든 회사 및 조합은 법인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법인소득세율은 2007년 1월 1일부로 종전 15%에서 10%로 인하됐다. 이는 EU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 특별 법인소득세 : 보험 및 재 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7%이며 생명 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2%이다. 전화나 전자로 진행되는 도박의 경우 배팅 수익금의 15%를 세금이 부과된다. 선박을 이용한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징수하며, 선박의 톤수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르게 계산된다.
- 부동산 세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0.1%~4.5%의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 지사의 소득: 지사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의무가 있다.
- 배당 및 자본 소득: 불가리아 기업이 배당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금이 부과된다. 외국 거주자가 불가리아 내에서 자본 소득을 발생시켰을 경우,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Act)에 의해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불가리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득액에 관계없이 10%의 정률 소득세(flat tax rate)를 부과하고 있다. 거주자는 불가리아에 영구 거주자가 있거나 1년 365일 중 183일 이상을 불가리아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불가리아에서 얻은 소득에 한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불가리아 내에서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개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개인의 사업 활동이라 함은 불가리아 내에 사업체가 있거나 활동 근거가 있고 불가리아 내에서 소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 △ 부동산의 교환 또는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 △ 동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소득, △ 법정 연금 또는 의료보험, 사회보장 보험으로부터 받은 보상, △ 은행 저축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법정으로부터 얻은 이자 또는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 △ 사회 금융 지원금 및 실업 수당 등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소득, △ 정부의 아동 양육비,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 비엔나 협약에 의한 외교관 소득, △ 농지 임대료
- 원천징수: 고용주가 매월 원천 징수해 납부한다.
- 자본 이득: 자본 취득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산출한다.
- 자유직업 소득: 소득 발생 시 15%를 징수하되 법정 사회보장세 등 납부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 개인 사업 소득: 연간 종합 소득세 정산에 의해 과세된다.
- 임대 소득: 연간 종합 소득세 정산 대상이며 소득의 10%는 과표에서 공제 허용된다. 임대 소득이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10%의 지주세 징수한다.
- 로열티 및 기술료: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10%의 세금을 징수한다.

- 배당 소득: 소득의 5%를 확정적으로 원천 징수한다.
-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계약 소득: 연간 정산 대상 소득이다.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소득은 10% 확정 과세 대상이다.
- 기타 소득: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를 확정 과세 원천징수한다.
- 기타 : 배우자는 독립된 과세 대상이며 배우자 간 소득의 합산 및 분배 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인 연간 소득 종합신고 기한은 익년 4월 30일이며,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개인 소득세법(Private Income tax Act; <https://www.minfin.bg/en/827>)을 참조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1999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으며 유럽의 부가가치세법과 제도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과거 12개월간 과세 매출 BGN 100,000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매출 발생이 확인된 후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다음 달 14일 이내에 전월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5년 1월부터는 의무 등록 기준이 BGN 166,000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다만 EU 역외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관광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일원화하는 EU의 권고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자료 9%의 통일된 관광 서비스 부가세를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의 모든 호텔은 투숙객들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부가세 9%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호텔 룸 이외의 상담장이나 시설물 사용에 따른 부가세는 20%가 적용된다.

빵과 밀가루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까지 0% 부가세율을 적용하며, 책과 인쇄물의 경우 9%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특별소비세

- 물품세(Excise Duties): 특정 물품의 반입 시에는 물품세를 납부해야 한다.
 - 무연 휘발유: 1,000리터당 BGN 710.
 - 디젤: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1,000리터당 BGN 646,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1,000리터당 BGN 646.
 - LPG: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1,000kg당 BGN 340,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1,000kg당 BGN 0.
 - 등유: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1,000리터당 BGN 646,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1,000리터당 BGN 646.
 - 천연 가스: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기가줄 당 BGN 0.85,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기가줄 당 BGN 0.60,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기가줄 당 BGN 0.10으로 증가했다.
 - 바이오가스: 제로 레이트.
 - 중유: 선박의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1,000 kg 당 BGN 646.
 - 전기: MWh당 BGN 2(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0%).
 - 맥주: BGN 1.50/hl/°Plato.
 - 와인: 영세율
 - 에틸 알코올: 헥타르 당 BGN 1,100.
 - 담배: 25% 애드벌로렘 플러스 BGN 109/1,000개 (1,000개당 최소 총 BGN 177).

기타

- 지주세 (Withholding Taxes):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특정 형태의 소득 중 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지주세가 부

과된다. 지주세 부과 대상 소득 유형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다. 지주세 납부 기한은 익년도 3월 31일이다

-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는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외국 기업의 지분이 15%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0%(정부 및 국가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면제), 로열티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지방세 및 수수료(Local Taxes & Fees):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현재 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동산세(Real Estate Tax),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쓰레기세 (Garbage Charge), 자동차세(Vehicle Tax & Road Charge)

○ 코로나로 인한 부가가치세(VAT) 한시적인 인하 연장 논의

-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불가리아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 도서, 아기 위생 용품(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기존 부가세 인하 조치는 2021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불가리아는 국내 개별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물, 반도체배치설계, 식물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불가리아 법에 따라 'BPO'라 약칭하는 불가리아 특허청(Patent office of the Republic of Bulgaria, 이하 'BPO'라 함)에 지식재산권을 개별 출원하거나 등록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

- (특허권) 신규성이 있고 진보적이며 산업상 활용가능성이 높고,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형식 심사만 진행하며 출원일로부터 4년간 보호되고, 각 3년씩 2회 갱신할 수 있다.

- (디자인권)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제품이나 제품 일부가 보이는 모양, 선, 그림 장식, 색상 조합 또는 이들 조합에 대해 인정된다. 보호기간은 10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불가리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 헤이그협약 : 디자인권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면 협약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경우 최초 등록시 4년간 보장되며 3년씩 2회 연장하여 총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다.
- (상표권) 식별력이 인정되고 절대적, 상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 결정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 기간은 10년씩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 (저작권)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소송 요건을 갖춘) 독점실시권자는 소피아시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BPO에 등록 지식재산권의 등록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불가리아 특허청장은 상표권, 지리적 표시, 특허 실용신안법 및 산업 디자인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침해자에게 벌금 또는 금전적 제재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으며, 불가리아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개별국 등록 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등록 출원을 통해서도, 불가리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개별국 출원보다는 EU 차원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용할 수 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특허권 등 무형 재산권 등록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https://portal.bpo.bg/tax-calculator/>)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안내문구

* 법인의 설립 및 청산, 해산, 파산등과 같은 법률적인 부분은 현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정확함.

관련 법 및 절차

불가리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기도 하지만, 모기업의 재정 악화나 현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을 철수 및 청산할 때는 불가리아 상법에 근거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납부가 충실히 이행되고, 체납 세금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규정상으로는 6개월 정도의 시간 내에 철수 및 청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 세무 당국 및 유관기관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실제로 청산에 걸리는 시간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회사의 청산은 해산을 전제로 하며, 법인의 모든 법률적 관계를 종료시킨다. 청산은 해산 후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 정리 및 회사의 잉여 재산을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등기 말소를 등기소에 신청해 회사 법인 자격이 완전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 불가리아에서 법인 철수를 위한 청산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청산자는 관할 세무서(National Revenue Agency)에 청산 시작을 알리는 청산 요구 신청서를 제출 (세무서로부터 청산증명서 발급까지는 보통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청산자는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와 청산 결정서, 청산 방법 관련 보고서를 등기청(Registry Agency)에 보고
- 법무부 산하 불가리아 사업자 등록사이트(Trade Register)에서 청산 관련 보고서를 공시
- 관할 세무서(National Revenue Agency)는 사회 및 건강보험 포함한 모든 세금 내역을 조사후, 체납 세금 여부 확인
- 청산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회사 청산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관할 세무서는 청산사실을 공시, 청산자는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청산 사실 통보

- 채권자 중에서 클레임을 원하는 경우, 청산 사실 공시 이후 6개월 이내 클레임 제기 가능
- 6개월 기한 내 아무런 클레임이 없는 경우, 등기소에서 청산 기업명을 삭제 조치 (단, 이때 청산자는 사회보험국(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으로부터 두 개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개의 서류는 근로자들의 고용 및 회계 서류가 제출됐다는 증명서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건강보험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임)
- 등기청은 모든 서류와 증명서가 구비되면, 청산 기업명을 삭제하고 사업자 등록사이트에서도 삭제 조치
- 해당 과정 중, 청산 시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관할 지역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게 되며 배당 절차를 통해 잔여 자산을 처리하게 된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1) 발칸 반도 중앙에 위치, 유럽 진출 교두보

- EU회원국으로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서유럽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 유로화 도입 등 EU 융합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EU역내국 및 인근 동유럽 시장 진출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다.
- 개인 및 기업 소득 세율이 10%로 EU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며, 현지의 낮은 임금을 활용한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 진출에 유리하다

2) 규모는 작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동유럽의 틈새시장

- 인구 644만 명 내외, 1인당 국민 소득 약 1만 6천 달러 수준의 작은 시장이다.
- 시장 규모가 작아 바이어가 느끼는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최소 주문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작은 시장 규모로 대기업의 시장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 2019년~2023년 불가리아 수출 중소기업(개사) : (2019년)824 → (2020년)845 → (2021년)849 → (2022)907 → (2023)1,060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1) 소비 인구 개요

불가리아의 인구는 644만 명(2022년 기준)으로 루마니아, 그리스 등 인근국 대비 소비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다. 제조업 등 2차 산업 발달이 미약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독일 등 서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지 평균 물가 수준 대비 공산품 가격이 비싼 것이 특징이다. 1인당 GDP는 약 15,880달러로(2023년 IMF 기준), 불가리아 소비인구는 EU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역내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고임금 직장을 얻기 위한 서유럽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은 편으로, 불가리아 소비 시장 내 핵심 소비층(경제활동이 활발한 20~64세)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연령별 소비인구 분포

2022년 기준 주력 소비층인 20~64세 인구는 총 3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수준이다. 미성년 인구(19세 이하)가 121만 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하며, 노년 인구(65세 이상)가 151만 명으로 총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 역시 다른 유럽국가와 유사하게 연평균 2%의 성장률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년 소비층의 비율이 지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노년 인구의 비중 23%로 높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다.

3) 지역별 소비인구 분포

불가리아의 도시화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도시 거주 인구는 474만 명, 농촌 거주 인구는 170만 명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도시 거주 인구가 총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 내 주요 도시로는 2022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소피아(128만), 플로브

디프(32만), 바르나(32만), 부르가스(19만) 등이 있으며, 해당 5대 도시에 인구의 32%가량이 집중되어 있다.

4) 소득별 소비인구 분포

불가리아 소비인구는 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며, 중간 소득층이 적어 시장이 저가품과 고가품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특히, 불가리아 고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독일, 영국 등 서유럽에서 사업이나 학업 목적의 체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서유럽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참고로, 불가리아의 경우 IT 분야 종사자의 임금이 전체 평균 대비 138%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반면, 식당/숙박 등 단순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은 전체 평균 대비 63%로 가장 낮은 편이다.

* 2023년 불가리아 월 평균 임금: BGN 2,012 / IT분야 평균 임금: BGN 4,783/ 식당, 호텔업 등 단순 서비스업 평균 임금: BGN 1,274/ 2024년 법정 최저 임금 : BGN 933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IMF>

소비 성향

1) 가격

일반적인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한 편이다. 저소득 소비자의 경우 가격 요인이 제품 구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중국이나 튀르키예에서 수입된 저가 제품을 즐겨 소비하는 편이다.

반면, 불가리아 특유의 과시 문화로 인해 고소득 소비자는 오히려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하여 Fantastico, Metro 등에는 고소득 소비자를 위한 프리미엄 식품 코너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

2) 제품

2007년 EU 가입 이후 서유럽권 국가와의 인적교류,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서유럽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다. 또한, 바이어들이 독일, 이탈리아 등 인근국에서 소량 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하여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독일 등의 서유럽 제품이 비교 기준이 되는 편이다. 한편, 저가 공산품의 경우 인근국인 터키나 중국 등에서 다수 수입되고 있다.

3) 유통 구조

과거 시장이나 소형 잡화점이 주요 유통망이었으나 도시화 가속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 및 제품별 전문 매장의 유통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식료품 등의 경우 현대적인 슈퍼마켓 체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60%, 소형 잡화점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40%이다. 주요 유통망으로는 Kaufland, Lidl, Billa 등 서유럽 유통체인 및 불가리아 자체 유통망인 Fantastico 등이 있다.

또한, 의류/신발, 전자 제품, 미용, 홈/가든, 레저/스포츠 등의 제품 별 전문 매장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현지 운영 중인 전문 유통망으로는 Decathlon(스포츠/레저), Technopolis(전자제품), IKEA(홈/가든), Jumbo(장난감) 등이 있으며, 저가 중국 수입품만을 취급하는 China City(생필품)도 있다.

뷰티의 경우 오프라인 주요 유통망은 DM, Lilly 등이 있으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거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이며 저렴한 중국산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가리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이며 전자제품 전문 매장에서 삼성, LG 제품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주요 가전제품인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에 있어서도 삼성, LG 브랜드가 강세를 보인다. 최근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자제품 매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관공서, 호텔에도 대부분 삼성, LG TV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 차량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 현지 택시 회사 중 일부는 KIA Ceed 모델과 전기 자동차인 니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순찰 차량에도 동일한 모델을 운용하고 있어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또한, 영국 등 서유럽에서 발생한 한류가 불가리아 등 동유럽으로 확산되며 불가리아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국산 생활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 이후 한국의 방역 사례가 불가리아 현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며 마스크 등 한국산 의료 용품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개

선되고 있다. 한국 콘텐츠가 불가리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데, OTT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의 경우 16주 이상 TOP10 콘텐츠에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K-PO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며 Sephora 등 현지 주요 화장품 유통망 내 한국 화장품 섹션이 생겼으며, 불가리아 화장품 오프라인 대형 매장인 DM, Lilly등에도 한국산 화장품이 입점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현지 주요 쇼핑몰 중 하나인 Seridika Center Mall 내에 불가리아 최초로 한국 화장품 전용 숍이 개업했다. 그 이후 Ring Mall, Paradise Mall 뿐 아니라 현지 시 중심가의 전문샵까지 생겼다. 흑해 연안의 도시인 바르나와 부르가스에도 매장이 오픈했다.

한편,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으로 BTV, BNT 등 불가리아 주요TV방송에서는 한식 소개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식당도 소피아 시내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는 소피아시 도심 내 대형 한국 식품 매장도 개업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많은 현지인들이 찾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중국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라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부분을 강조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가 선호 경향이 강해 중국산과의 단순 비교 시,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므로 제품의 사양, 성능, AS 등 중국산과의 우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단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국가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상품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다소 용이해졌다.

2)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금융 부문의 취약성 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파악이 필요하다. Unicredit Bulbank, Raiffeisen bank, First Investment Bank, Post bank, UBB 등 비교적 건실한 은행과의 거래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원자재 수출 또는 대형 설비 수출의 경우 바이어에 대한 사전 신용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어의 신용도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보험 상품 가입 시 혹시 모를 바이어의 수출 대금 미결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된다.

3) 현지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유럽에서 통용되는 품질 인증(규격 인증 포함), 즉 CE 마크 획득이 필수이다. 화장품의 경우 CPNP인증 획득도 필수다. 불가리아 수입 업체들은 소량 수입·판매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업체가 요구하는 최소주문량(MOQ)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규모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해 최소주문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식 오더 이전에 샘플 공급 및 판매를 통해 바이어의 역량을 평가하고 사전 시장조사를 진행한 다음,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오더 물량의 수준을 가능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4) 결제조건 제시

우리나라 업체는 대부분 T/T in advance 조건이나 L/C(신용장) at sight(일람불)를 요구하고 있으나, L/C 개설에 따른 서류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개설에 따른 은행 수수료가 발생해 현지 업체들이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T/T 결제를 선호하며, 현지 관행상 선금 30%, 선적 후(선적서류 사본 송부 후) 70%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품에 따라 50% 대 50% 또는 30% 대 60% 그리고 나머지 잔금 10%를 물건 검수 확인 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전 송금 및 잔액 도착 시 지불 등 결제조건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가장 보편적인 복장은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다소 대범한 복장도 용인되는 편이지만 첫 만남인 경우에는 격식을 차리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리아 직장인들은 청바지, 면바지에 셔츠를 입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고, 공식 행사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정장을 착용한다. 면식이 있는 바이어나 상대방의 경우에는 평상복도 용인되는 편이므로 복장에 크게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2) 인사

불가리아에서의 인사는 남녀의 구별없이 가볍게 악수하는 것이 무난한 인사법이다. 상대방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은 어색하므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고 가볍게 악수를 나누면 된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이며 명함이 없거나 소진됐을 경우, 타인의 명함 위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위로 간주된다.

호칭의 경우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보다 직함을 불러주는 것을 더 선호하며 남자의 경우는 Mr, 여자의 경우는 Miss,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는 Dr.라는 명칭과 성을 결합해 부르는 것이 관행이다. 예를 들어, 게오르기 디미트로브(Georgi Dimitrov)라는 회사 사장을 호칭할 경우에는 미스터 디미트로브(Mr. Dimitrov)라고 불러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프레지던트 디브트로브(President Dimitrov)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가장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는 서로의 존경과 친근함을 표하는 인사법으로 자기 뺨을 상대방의 뺨에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왼쪽으로 한 번 가볍게 대는 인사를 한다. 이 인사법은 친한 동료나 오랫동안 못 본 친구에게 하는 인사법이므로 처음 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

3) 선물

불가리아인에게 선물을 할 일이 있다면 보통 꽃(장미), 책 등이 무난하다. 결혼식 때는 관습적으로 '칼리야'라는 꽃을 선물해 왔으나, 요즘에는 연분홍색 장미꽃도 많이 선물하곤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친구에게 시계를 선물할 경우 시계가 우정 지속기간을 잴다고 여기며,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선물로 프라이팬을 주는 것은 아내를 단지 'housewife(전업주부)'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뜻으로 여겨 선호하지 않는다.

그 외에 보편적으로 적합한 선물로는 와인이 있다. 불가리아는 포도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와인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으므로 와인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다만, 50달러가 넘는 고급와인이나 양주 등은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따라 선택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한다. 실제로 생일이나 네임 데이(name day)를 맞은 사람이 당일날 주변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관습이 있다. 불가리아에는 생일 이외에도 네임 데이를 축하하는 관습이 있으며, 보통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 성인의 날이 자신의 네임 데이가 된다. 관공서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때는 대중적인 초콜릿이나 10달러 이하의 와인이 적당하다. 처음 만나는 바이어에게는 한국의 특성이 담긴 인삼차나 홍삼절편, 볼펜 등이 무난하고 생일선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한국 인형이나 자개를 박은 보석함, 명함첩, 부채 등도 증정하기에 적합한 선물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러하듯, 불가리아인들도 각 나라 전통문양이 새겨진 거울, 컵받침 등 전통이 녹아있는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매우 좋아한다. 또 현지인들에게 한국 화장품은 순한 원료를 쓰는 화장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선물로서 선호도가 높다.

4) 약속

불가리아인은 시간 개념이 명확한 편으로 비즈니스 미팅 등의 공식 만남의 경우 늦지 않고 약속 시간을 준수한다. 현지 기업이나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서면으로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리아 관공서의 경우 회신이 더딘 편으로, 서면 신청 후 전화로 면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면담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원하는 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5) 식사

유럽의 국가 중에서 불가리아의 요리는 한국인의 취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선 불가리아인은 마늘과 고추를 양념으로 사용하며 파와 양파도 비중 있게 즐긴다. 불가리아인은 식전주로 라키야라고 불리는 40도짜리 과일주를 마시며 전식으로 샐러드와 스프, 다음으로 메인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당도가 높은 케익이나 티라미슈 등을 디저트로 먹는다. 식사를 할 때 아이란이라는 요구르트 음료를 즐겨 마시는 편이며, 저녁은 든든하게 먹는 편이다. 다만, 저녁시간이 오후 8~10시 사이로 늦게 음식을 먹는 편이며, 특별한 파티의 경우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건배를 할 때는 잔을 보지 않고 상대방 눈을 보며 가볍게 잔을 부딪치며 나즈드라베(당신의 건강을 위해 라는 의미)라고 외치면 된다. 음식의 재료는 대부분이 돼지와 닭고기이며, 쇠고기는 드물고, 양고기는 고급 요리로 평가된다. 중고급식당에는 생선 요리도 있다. 최근 들어 스시 음식이 많이 알려지면서 스시와 일반 음식을 결합한 퓨전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현지에서 가장 잘 알려진 퓨전 식당은 happy(www.happy.bg)이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성공한 퓨전식당으로, 각종 고기류의 일반 음식을 비롯해 해물, 스시, 스타게피, 피자 등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 중에 하나이다. 스시가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양식에 비해 가격대가 비싼 고급 음식이다. 다만, 불가리아 사람들이 흔히 먹는 스시는 일반 한국, 일본에서 먹는 스시 종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 롤과 같은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소피아시에는 한국 식당들도 있으며, 현지인들 간혹 매운 것을 전혀 못먹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메뉴 주문시 유의해야 한다.

6) 문화적 금기 사항

불가리아인들은 장례식 참석 시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지 않고 오직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며, 조화 준비 시 반드시 2, 4, 6과 같은 짝수로 준비해야 한다. 평상시에 선물용으로 꽃을 상대방에게 선물할 때는 반드시 홀수로 준비해야 하며 짝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가입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과거 공산주의 정권 영향으로 러시아에 적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인, 기업인, 일반인 등도 있는 바 전쟁 등 국제 정세를 언급할 때 이를 유의하여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태도

불가리아와 비즈니스를 할 시에는 한국식의 빠른 태도보다는 여유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비즈니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거래 시 수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불가리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 교신 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유선 접촉 또는 KOTRA 소피아 무역관을 통해 접촉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Remedium

사이트 주소	https://remedium.bg/
개요	화장품, 의약품 등 판매 약국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23년 매출액 약 1천 4백만 달러
주요 판매 품목	의약품, 화장품
특징	온오프라인 병행

◦ Technomarket

사이트 주소	https://www.technomarket.bg/
개요	대형 전자제품 쇼핑몰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2년 설립, 2023년 매출액 약 2천만 달러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특징	온오프라인 병행

◦ eBag

사이트 주소	https://www.ebag.bg/
개요	당일 배송 식품, 생활용품 전문 플랫폼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4년 설립, 매출규모 알 수 없음, 고용인원 74명
주요 판매 품목	식품, 생활용품 등
특징	당일 주문 당일 배송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 LILLY

사이트 주소	https://www.lillydrogerie.bg/bg/
개요	세르비아계 드럭스토어 (불가리아에서는 약을 제외한 제품 판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0년 불가리아 개업, 매출 및 고용인원 알 수 없음
주요 판매 품목	화장품, 건강, 생활용품 판매
특징	온라인/전국 오프라인 매장 보유

◦ DM

사이트 주소	https://www.dm-drogeriemarkt.bg/
개요	독일계 드럭스토어 (불가리아에서는 약을 제외한 제품 판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8년 불가리아 개업, 6천 6백만 매출, 고용인원 약 130여명
주요 판매 품목	화장품, 건강, 생활용품 판매
특징	온라인/전국 오프라인 매장 보유

◦ BAZAR

사이트 주소	https://bazar.bg/
개요	중고제품 전문 플랫폼
주요 판매 품목	중고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가전 등) 및 부동산
특징	온라인 전문 플랫폼

◦ EMAG

사이트 주소	https://www.emag.bg/
개요	온라인 쇼핑몰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1년, 5억 달러
주요 판매 품목	생활용품, 가전, 전자 제품 등
특징	온라인/전국 오프라인 매장 보유

◦ Zora

사이트 주소	https://zora.bg/
개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샵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1년, 백만 달러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생활용품
특징	온라인/전국 오프라인 매장 보유

◦ Technopolis

사이트 주소	https://www.technopolis.bg
--------	---

개요	전자 제품 전문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샵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1년, 약 4,100만 달러
주요 판매 품목	전자 제품
특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한국남동발전과 태양광 전문기업 SDN은 산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공동투자자 2011~2012년 42MW의 태양광 발전소를 불가리아에 건립했다.(총 투자비 1억 5,400만 유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투자를 유치한 불가리아 정부는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책에 따른 재정난으로 Grid Access Fee(2012년), Solar Fee(2014년) 등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고, 이로 인해 양 기업은 금융상환 위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2013년 불가리아 대법원이 불합리한 Grid Access Fee를 폐지하고, 2014년 Solar Fee 역시 위헌 결정을 받는 등 현지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위기는 곧 해소됐다.

불가리아 내 시장주도형 전력 시장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남동발전과 SDN은 현지 글로벌 은행들과 리파이낸싱을 성사시켰으며(2017년), 2020년 1월에는 해당 은행들과 파이낸싱 조건 개선 계약(이자율 0.5%p 인하)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2022년,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조기 회수했다.

동 사례는 우리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유럽 신재생 에너지 신흥국인 불가리아에 동반 진출해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와 사업 운영으로 현지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극복하고, 해외 투자에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나. 실패사례

2018년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주문 생산하는 한국기업이 불가리아 내 유럽 수출용 신발 생산 공장 투자 진출을 검토했다.

하지만, 동 기업은 현지 노동력의 서유럽 유출 등으로 공장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투자 진출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무비자 입국(관광비자)

1994년 8월 우리나라가 불가리아와 단기사증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 이내 체류 시 비자가 면제된다. 따라서 무역사절단, 비즈니스 출장 등 불가리아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2024년 3월 31일부터 쟁쟁 국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항공으로 이동 시 별도의 출입국 검사를 하지 않는다. 단, 90일 이내 체류 시 비자 면제는 쟁쟁 국가 전체에서 적용되므로, 타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불가리아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3월 31일 이전 30일 체류했다면, 3월 31일 이후 불가리아 입국시 무비자 입국은 60일만 가능하다.

2) 체류비자 입국

불가리아 장기 체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비자신청서, 여권사진 2매(1년 이내의 사진)
-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
- 현지 거주지 계약서
- 비자 신청 목적이 명시된 증빙서
- 체류기간 보험 가입 증빙 서류
- 범죄기록 증명서
- 장기비자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서류 준비 과정

- 비자 신청서 문의: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영사과에 이메일로 문의해 비자 신청서 서식을 받는다.

○ 비자 신청 관련 서류 준비

-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 상기 비자 신청서 서식과 만료기한이 충분히 남은 여권(최소 6개월), 1년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
- 현지에서의 재정수단 증빙 서류
- 본인 명의로 된 은행 영문 잔고 증명서(한 달 기준 200유로 / 예: 6개월 비자 신청 시, 1,200유로 이상의 잔고 필수)
- 비자 신청 목적을 명시하는 서류
- 학교 입학원서, KOTRA 인턴 채용 증명서 등 불가리아 장기 거주 목적이 명시된 서류
- 현지 거주지 증명 서류
- 거주지 계약서 원본, 영문 공증본 서류
- 영문 보험증권: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증권
 - 체류기간 보장, 최대 보상금액 30,000유로 이상, 영문 증권 원본
- 범죄기록 증명
 - 경찰서 민원센터에서 영문 범죄기록 증명서 발급 후, 외교부 여권과로 찾아가 증명서에 아포스티유(Apostile)를 받는다. 그 이후 해당 문서를 대사관 번역사에게 보내 불가리아어 번역을 받고 완성된 문서 원본을 제출한다(불가리아어 공증은 주한 불가리아대사관에서 진행).

○ 비용

- 비자 신청 수수료: 비자 종류에 따라 100/200유로 (약 15만원 / 30만원, 현금 완납 필요)

- 보험 가입: 약 500,000원
- 영문 범죄사실 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 불가리아어 번역 및 비용은 번역사에게 문의 필요
- 범죄사실 증명서 영문 공증: 50,000원 내외
- * 만 6세에서 12세는 비용이 없음

3) 비자 신청 서류 접수

- o 이메일, 유선으로 서류 접수 및 영사 미팅 신청
- o 이메일 접수 시, 신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o 영사 미팅 날짜 확정 후 신청 서류, 수수료 및 여권 등을 준비해 대사관 방문
- o 비자 발급 기간은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약 30일 소요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름)
- o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 결과를 전화로 받게 됨.
- o 해당 날짜에 대사관 방문, 비자 수령 완료

4)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연락처

- o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2-8
- o 홈페이지 : <https://www.mfa.bg/en/embassies/korea>
- o 연락처
 - 전화: (02)794-8625, 26
 - 팩스: (02)794-8627
 - 이메일: Embassy.seoul@mfa.bg
 - 긴급전화(업무 시간 이후) : 010-3549-8625
- o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5:30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담배류

- (Cigarettes) 항공 입국 시 200개비 / 기타 교통편을 통한 입국 시 40개비
- (Cigars) 항공 입국 시 50개비 / 기타 교통편을 통한 입국 시 10개비
- (Cigarillos) 항공 입국 시 100개비 / 기타 교통편을 통한 입국 시 20개비
- (Tobacco) 항공 입국 시 250그램 / 기타 교통편을 통한 입국 시 50그램

2) 주류

- 알코올 함량이 22% 이상 1리터
- 알코올 함량이 22% 미만 2리터
- 논 스파클링 와인(Non-Sparkling wine) 4리터
- 맥주 16리터

3) 기타 제품 (커피, 차류, 향수, 완구류, 전자기기 등)

- 항공/선박 입국 시 EUR 430 이하의 제품
- 육로/강 입국 시 EUR 300 이하의 제품

4)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현금/기타 귀금속류 등은 세관에 신고해야 함

- EUR 10,000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통화, 수표, 여행자 수표, 금 제품
- 37그램 이상의 금 또는 백금
- 금 또는 백금을 포함하는 60그램 이상의 장신구
- 300그램 이상의 은, 또는 은이 함유된 장신구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59-2-971-2181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Srebarna Street 2V, Mobi Art Building, Floor 4, Sofia, Bulgaria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bg-ko/index.do
비고	긴급 사건사고 연락처: +359-887-503-270(휴대전화)

○ 불가리아 한인회

전화번호	+359-886-631-205 (한인회 회장 : 강환경)
주소	-
홈페이지	http://bulgaria.korean.net
비고	이메일 : koreans.bulgaria@gmail.com

<자료원 : KOTRA 소피아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경제부

전화번호	+359-2-940-7322
주소	8, Slavyanska Str., Sofia 1052, Bulgaria
홈페이지	http://www.mi.government.bg
비고	이메일: e-docs@mi.government.bg

○ 재무부

전화번호	+359-2-985-91
주소	102, G. S. Rakovski str. sofia, 1040
홈페이지	http://www.minfin.bg
비고	이메일: feedback@minfin.bg

○ 불가리아 의회

전화번호	+359-2-939-39
주소	Sofia 1169 2 Narodno Sabranie Sq.
홈페이지	http://www.parliament.bg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전화번호	+359-2-8117-400
주소	Sofia 1058, 9 Iskar Str
홈페이지	https://www.bcci.bg/
비고	이메일: bcci@bcci.bg

○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전화번호	+359-2-914-59
주소	1, Knyaz Alexander Sq., 1000 Sofia, Bulgaria
홈페이지	http://www.bnb.bg
비고	이메일 : BNB-Delovodstvo@bnbank.org

○ 불가리아 중소기업진흥청(BSMEPA)

전화번호	+359-2-940-7940
주소	SOFIA 1000, 2-4, Lege Street
홈페이지	https://www.sme.government.bg/en/
비고	이메일: office@sme.government.bg

○ 불가리아 산업협회(BIA)

전화번호	+359-2-932-0911
주소	1527 Sofia, 76 Chataldzha Str
홈페이지	http://www.bia-bg.com/info/biamembers_en.html
비고	이메일: office@big-bg.com

○ 불가리아 등기청(Registry Agency)

전화번호	+359-2-948-6194
주소	Sofia 1111, 20 Elisaveta Bagryan Str
홈페이지	http://www.registryagency.bg/en/
비고	이메일: office@registryagency.bg

○ 불가리아 관세청(Customs Agency)

전화번호	+359-2-9859-4210
주소	G.S.Rakovski 47 Str. Sofia 1202 Bulgaria
홈페이지	https://customs.bg/wps/portal/agency-en/home
비고	이메일: delovodstvo@customs.bg

○ 불가리아 통계청(NSI)

전화번호	+359-2-985-7111
주소	2, P. Volov Str. 1038 Sofia, Bulgaria
홈페이지	http://www.nsi.bg/en
비고	이메일: Info@nsi.bg

○ 불가리아 산업단지공단(NCIZ)

전화번호	+359-2-890-2902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홈페이지	http://nciz.bg/en/
비고	이메일: office@nciz.bg

○ 불가리아 국영 TV(BNT)

전화번호	+359-2-944-4999
주소	Sofia 1000, 29 San Stefano Str
홈페이지	http://www.bnt.bg/
비고	이메일: gledam@bnt.bg

○ 불가리아 뉴스에이전시(BTA)

전화번호	+359-2-926-242
주소	49 "Tsarigradsko shose" blvd, 1124 Sofia, Bulgaria
홈페이지	http://www.bta.bg
비고	이메일: bta@bta.bg

○ 불가리아 주요 경제일간지(Capital)

전화번호	+359-2-4615-122
주소	20 Ivan Vazov Str, Sofia 1000
홈페이지	http://www.capital.bg/
비고	이메일: info@capital.bg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80 BGN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8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2.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1.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5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00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6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2L	1.400
8	의료	파라세타몰	12정	6.0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9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900
11	교통	택시요금	시내-공항 기준	8.0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0.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500
14	서비스	인터넷 월 사용료(30Mbps 기준)	1개월	8.500
15	서비스	휴대전화요금(무제한요금제)	1개월	25.000
16	여가	담배 (말보로)	1갑	3.100
17	여가	소주 (한식당 내 판매최저가)	360ml	12.000
18	임금	최저임금(월급여)	법정최저	510.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G1~5기준) 수업료 (기타부대 비용 포함, 신입생 기준)	연간	30411.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3.430
21	식품	쌀	롱그레인 1kg	3.300
22	식품	식빵	한묶음	2.000
23	식품	고기(돼지/소/닭/ 태1)	1kg 삼겹살	10.000
24	식품	계란	10개	3.200

25	식품	우유	1L	1.700
26	식품	식용유	1L	2.40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140
28	주거	수도세	m ² , 월	11.000
29	주거	가스비	기가줄	11.00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	8.0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64.0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240.0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14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VIVACOM 아시아국가 기준)	10분	32.00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VIVACOM 요금제 언리미티드 100)	무제한 요금제	18.8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18.400
37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10.00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10.00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5.00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5.000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중앙은행, KOTRA 소피아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불가리아의 화폐 단위는 레바(Leva)이며 지폐는 100, 50, 20, 10, 5레바 동전은 2레바, 1레바 및 50,10, 20, 5, 2, 1 스토틴키(Stotinki)가 있다. 100 스토틴키는 1레프(단수는 레프, 복수는 레바)이며 공식환율표현은 BGN이다.

환전방법

환전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내 일반 환전소에서 가능하다. 우체국, 은행에서는 여권과 같은 신분 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시내 환전소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 없이 환전할 수 있다. 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로부터 환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의 경우, 위폐나 신문 조각 등을 이용해 속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 환전소라 할지라도 환율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공항 환전소, 민간 환전소, 은행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하며 민간 환전소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다.

환전상에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환율과 최종 금액을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서명해야 한다. 환전소 밖에 고시된 환율의 소수점 자리 수 및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전소는 대부분 휴일이나 야간에는 문을 닫으나 시내 일부 환전소의 경우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소액환전의 경우 별도 환전소보다 호텔 컨시어지에서 교환하는 게 편리할 수 있다. 불가리아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 정보는 불가리아 중앙은행 (www.bnb.bg) 또는 유니크레딧 불뱅크(www.unicreditbulbank.b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수도인 소피아의 경우 노점,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2024년 3월부터 모든 식당에 POS단말기 비치 의무화되었다. 다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아직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 비중이 높아 지방 소도시 출장 시에는 현금을 꼭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불가리아 소피아 시내의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막히며, 출퇴근 시간 외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고속도로가 불가리아 동부지역, 남부지역으로 잘 나있는 편이나 북부지역은 고속도로가 다소 낙후되어 있다. 총 9개의 고속도로 중 부르가스 방향, 튀르키예 방향의 고속도로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부만 개통되어 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버스

불가리아 내에서 운영 중인 버스는 전동버스와 일반 버스 2종류이며, 버스표는 거리의 신문·잡지 가판대 또는 버스 탑승 후 버스 기사에게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단, 버스에서 구입할 경우 버스 기사가 잔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버스 요금만큼의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버스 승차 후에는 차 안에 설치된 펀치 모양의 개찰기에 개찰해야 한다. 검표원이 불시로 버스 내 승객의 개찰 여부를 검사(특히, 현지 버스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대상 검사가 많음)하며, 만약 개찰하지 않은 표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요금은 1.60레바로 한화 약 1,100원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할 경우 버스, 지하철, 트램을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일권(Daily Ticket)을 구매할 수도 있다.

1일권의 가격은 4레바이며 버스표 가판대, 지하철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일권의 경우는 버스나 트램에서 개찰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매회마다 충전(무료)을 요청해야 한다. 3일권(소피아패스)도 있는데, 20레바이며 60개의 관광명소에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택시

택시 요금은 자유화되어 있어 택시회사마다 다르므로 승차 시에는 유리창에 적혀있는 요금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본 요금은 택시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요금표의 가장 윗줄에 표시된 금액이 km당 요금으로, 이 요금이 0.90레바(정상시 요금)나 1.05레바(야간 할증 요금) 내외로 되어 있는 택시를 탑승하면 된다.

요금표는 보통 두 칸으로 구분돼 있는데, 왼쪽의 숫자는 낮 시간대 요금, 오른쪽의 숫자는 야간 할증 요금이다.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 요금 외에 분당, 거리당 요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 요금이 1.05레바 이상 적혀있는 택시는 요금이 다소 높은 것이다. 야간 할증 요금 적용시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며 콜택시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불가리아 내에서 규모가 큰 OK택시, Yellow 택시가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며 근처에서 OK택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이나 식당 등을 통해 OK택시나 Yellow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불가리아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균 택시 요금 대비 과하게 높은 택시 요금을 부과하는 사설 택시(scam taxi)가 많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탑승 전 미리 택시 요금을 확인하고 승차할 것을 권장한다.

불가리아에 처음 출장 올 경우 불가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콜택시 앱인 Taxi me나 Yellow taxi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거리에 따른 평균 예상 요금이 자동 계산되어 나오며 앱을 통해 담당 택시기사에게 도착지가 안내되어 현지 택시요금 시세를 잘 모르거나 불가리아어 구사가 힘든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앱에 카드를 등록시켜두면 자동으로 카드결제가 되므로 하차할 때 결제할 필요가 없다. 하차시에도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결제하지 않고 내려야한다.

지하철

불가리아에는 수도인 소피아에만 4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이 중 1호선과 4호선은 일부 구간은 함께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1.6레바로 한화 약 1,100원이며, 운행시간은 5:30부터 23:30까지이다. 대중 교통을 자주 이용해야할 경우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트램을 모두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일권(Daily Ticket)을 구매할 수도 있다. 1일권의 가격은 4레바이며 지하철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매회마다 충전(무료)을 요청해야 하며, 버스나 트램의 경우는 개찰 없이 1회권을 버스 기사에게 보여주면 된다. 지하철 탑승시 컨택리스 기능이 있는 카드라면 한국 처럼 카드를 찍고 탈 수 있다. 검표원이 검표 요구시 찍은 카드를 검표원의 POS기에 대면 승차 확인을 할 수 있다.

트램

시내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며, 승차 전 경류장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운전석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트램 승차 후에는 차 안에 설치된 펀치 모양의 개찰기에 개찰해야 하며, 검표원이 불시로 트램 내 승객의 개찰 여부를 검사(특히, 현지 대중교통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대상 검사가 많음)하며, 만약 개찰하지 않은 표를 가지고 트램을 이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요금은 1.6레바로 한화 약 1,100원이며, 운행시간은 5:30부터 23:00까지이다. 트램 내에서 소매치기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트램 이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다. 통신

핸드폰

불가리아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여 로컬 SIM 카드를 구입하면 된다.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대부분의 핸드폰에 맞는 유심칩을 제공하고 있다. 선불 요금제일 경우 불가리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후불 요금제일 경우 다른 EU 국가로 이동 시 자

동 로밍이 된다. 로밍시 무료 데이터가 가능하며 용량은 사용중인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선불 유심의 경우 선불 납부 이후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화 수신은 1년까지 가능하다. 주요 통신사로는 A1, Vivacom, Yettel등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와이파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라. 관광명소

○ 벨리코 트르노보 차레베츠 성(Tsarevets)

도시명	벨리코 트르노보
주소	Tsar Asen Square, 5000 Veliko Tarnovo
운영시간	8:00~19:00
명소소개	벨리코 트르노보(11~14세기 불가리아의 수도)의 5,000년 역사의 일부분이다. 4,200BC, 청동기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됐다. 1985년, 'Sound and Light'이라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성곽에 빛과 사운드 효과가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359 062 638 841 ○ 홈페이지: bulgariatravel.org

○ 릴라 수도원(Rila Monastery)

도시명	불가리아
주소	Rila Monastery
운영시간	월-금: 8:30~17:00
명소소개	발칸 반도에 있어서 정교 수도원의 총 본산으로 10세기에 최초 건축됐으나 현재 모습은 19세기 중반 보수 및 개축된 모습이다. 정교한 건축술, 벽화, 성화, 고문서, 나무 십자가로 유명하다. 불가리아 내 9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359 7054 2208 ○ 홈페이지: rilskimanastir.org

○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Aleksandar Nevski)

도시명	소피아
주소	pl. "Sveti Aleksandar Nevski", 1000
운영시간	7:00~19:00
휴무일	-

명소소개	네오 비잔틴 양식의 발칸 반도 최대의 사원(사원 내부가 1,300평방미터로서 5,000명 집회 가능)이다. 불가리아의 해방을 위해 터키와 싸운 러시아 병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882년 공사를 시작하여 1924년에 완성했다. 내부의 벽은 러시아, 불가리아 유명 화가들이 그린 성화로 가득하다. 지하실에는 고대와 중세 불가리아의 유물, 성화를 전시하고 있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359 2) 987 56 11 ○ 홈페이지: http://www.bg-patriarshia.bg

○ 비토샤 산(Vitosha mountain)

도시명	소피아
주소	-
운영시간	-
휴무일	-
명소소개	소피아 시 남쪽에 위치한 해발 2,290m의 산이다. 중턱의 코피토토 호텔(별 5개) 전망대에서는 소피아 시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최고봉 체르니 브르흐 바로 아래의 알레코까지 케이블카가 운행된다.

○ 플로브디브 고대 원형 극장(Plovdiv)

도시명	플로브디브
주소	4 Tsar Ivaylo Str., 4000 Tsentar, Plovdiv
운영시간	9:00~18:00
명소소개	불가리아 제2의 도시로서 로마시대의 원형극장과 구도시(Old Town)가 보존돼 있다. 원형극장은 현재까지도 콘서트나 다른 행사시에 쓰이곤 하며, 5000~7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359 032 621 040 ○ 홈페이지: visitplovdiv.com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체베르메토(Chevermeto)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2-963-0308
주소	Sofia, Bulgaria Square 1, Ndk, Pronoto, bul. "Pencho Slaveykov", 1463 Sofia
가격	2인 식사 기준 약 5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3: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20년 이상된 불가리아 전통 식당으로 저녁시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불가리아 전통 춤, 노래 등을 공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s://chevermeto-bg.com/ ○ 이메일 : chevermetobg@gmail.com

○ 보데니짜(Vodenitza)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2-967-1058
주소	KV. DRAGALEVTSI, PARK VITOSHA, SOFIA, BULGARIA
가격	2인 식사 기준 약 5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없음
소개	비토샤 산에 위치한 불가리아 고급 전통식당으로, 이낙연 전 총리 등 국/내외 유명 인사가 방문, 저녁시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불가리아 전통 춤, 노래 등을 공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vodenitzata.com/en/ ○ 이메일 : info@vodenitzata.com

○ 포들리삐떼(Pod lipite)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2-866-5053
주소	1, Elin Pelin Str., Sofia
가격	2인 식사 기준 약 5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3:00
휴무일	없음
소개	소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www.podlipitebg.com/en

○ 해피(Happy)

도시명	전국 프랜차이즈
전화번호	+359-88-6000-700
가격	2인 식사 기준 약 60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4:00

휴무일	없음
소개	불가리아의 가장 보편화된 현대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비고	○ 홈페이지 : https://www.happy.bg/en/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한국식당

○ 김밥 식당(Korean cuisine "Kimbap")

도시명	바르나
주소	ul. "Dragoman" 28, 9000 Center, Varna
가격	15 BGN ~
영업시간	12:00~21:00
소개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국식당 라면, 김밥, 짜장면, 불닭 볶음면 등 판매

○ 윤식당(Yoon)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2-963-0365
주소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가격	김치찌개 1인분 기준 15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4:00
휴무일	-
소개	불가리아 최초 한식당

○ 코리아 식당(Korea Restaurant)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899-912-404
주소	ul.Prof.Georgi Zlatarski 5
가격	김치찌개 1인분 기준 11~12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2:00 *일요일 휴무
휴무일	-
소개	한식당

○ 컵앤롤 센터(Cup & Roll Center)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888-414-608
주소	Pedestrian subway Gallery NDK, 1142 Sofia
가격	라면 6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
소개	라면, 김밥 등 분식 위주
비고	https://www.facebook.com/cupnrollcenter/

○ 비원식당(Bi-won Restaurant)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878-865-522
주소	Geo Milev, ul. "Liditse" 1, 1113 Sofia
가격	비빔밥 15달러 수준
영업시간	(평일) 10:30~22:00 / (주말) 11:00~21:30
휴무일	-
소개	비빔밥 판매
비고	https://www.facebook.com/thebibimbapsafia/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그랜드 밀레니엄 소피아(Grand Hotel Millennium Sofia)

도시명	소피아
주소	Vitosha Blvd 89B, 1463 Ivan Vazov, Sofia
전화번호	+359 2 445 67 89
홈페이지	https://grandhotelmillenniumsafia.bg/
숙박료	120유로 수준

소개	문화회관 주변 신축 호텔
----	---------------

○ 발칸 호텔 팰리스(Sofia Hotel Balkan Palace)

도시명	소피아
주소	5 Sveta, Nedelya Sq., 1000 Sofia
전화번호	+359-2-981-6541
홈페이지	https://www.sofiabalkanpalace.com/
숙박료	120달러 수준
소개	시내 중심가

○ 하얏트 호텔(Hyatt Regency Sofia)

도시명	소피아
주소	Vasil Levski Square, 1504 Sofia Center, Sofia
전화번호	+359-2- 440-1234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en-US/hotel/bulgaria/hyatt-regency-sofia/sofrs?&src=bbm_sem_bbm_search_google_eame_rooms_brand_catchall_All_Hyatt_destination_Bulgaria_Sofia_hyatt%20sofia&mckv=s-dc_pcrd_656952579820_mtid_5297kx13790&gclid=CjwKCAjwpayjBhAnEiwA-7enayl-VPaMHVgibi9iX8tK8Mfa1h3oBSo_cqL5s7vINILQuFQcMgs_OhoCjLUQAvD_BwE&gclsrc=aw.ds
숙박료	130유로 수준
소개	시내 인근지역

○ 노보텔(Novotel)

도시명	소피아
주소	115 N Tsarigradsko Shosse Blvd, 1784 Sofia
전화번호	+359-2-904-3000
홈페이지	http://novotel-sofia.hotel-ds.com/en/
숙박료	125달러 수준
소개	시내 중심 지역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호스텔 모스텔(Hostel Mostel)

도시명	소피아
주소	bul. "Makedonia" 2, 1606 Sofia Center, Sofia•088 922 3296
전화번호	info@hostelmostel.com
홈페이지	http://www.hostelmostel.com/
숙박료	8베드 도미토리 공용욕실 18.00 BGN - 24.00 BGN (~ € 9 - 12)ppn 8베드 도미토리 엔스위트 20.00 BGN - 28.00 BGN (~ € 10 - 14)ppn 6베드 도미토리 엔스위트 22.00 BGN - 30.00 BGN (~ € 11 - 15)ppn 침대 4개 개인실 공용 욕실 객실당 72.00 BGN - 96.00 BGN (~ € 36 - 48) 침대 3개 개인실 공용 욕실 객실당 66.00 BGN - 78.00 BGN (~ € 33 - 39) 더블룸/트윈룸 공용 욕실 객실당 50.00 BGN - 60.00 BGN (~ € 25 - 30) 싱글룸 - 공용 욕실 객실당 35.00 - 50.00 BGN (~ € 18 - 25)
소개	소피아 시내 위치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사. 치안

치안상황

폭행, 강도 등 강력 범죄는 많지 않다. 거리에서 집시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의 유색인종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는 그룹도 있으며 이들과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리셉션 등 행사에 참석하거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소지품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야밤에는 가능한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현금 및 귀중품 등은 호텔의 сей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갑 등은 휴대 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바가지 요금에 주의(요금 미터기 조작, 우회 등)해야 한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OK 또는 YELLOW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요즘 OK 택시를 가장한 가짜 택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Yellow(전화 : 91119) 택시와 OK(전화 : 9732121) 택시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를 전화로 알려주면 통상 5~20분 사이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Taxi me와 Yellow tax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지정하면 택시 이용 가능 현황이 뜨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 설명이 어려운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장소나 공공이용 시설물에 CCTV 및 LED 가로등 설치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보편화돼 있지 않아 너무 늦은 밤에 도심 공원으로 가는 것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치안은 안정돼 있어 평상시 생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신고센터(112) 또는 경찰(116)에 먼저 연락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불가리아대사관 사건사고(24시간)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 장소, 연락한 사람의 연락처 등을 알리고 필요시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지갑을 분실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한다. 여권의 경우 분실 시 즉시 여행사 등에 연락을 해서 현지 경찰에 분실, 도난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인 방문이라면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한다.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표됨에 따라 여권을 분실 신고할 경우 분실된 여권을 되찾아도 사용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분실에 대비하여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사진 1매, 여권사본, 비자사본을 지참할 필요가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 경찰서: 166
- 교통경찰: 165
- 앰블런스: 150
- 화재: 160
- 구조신고센터: 112
- 전화 안내: 144(국내), 0123(국제)
- 공항 안내: 937-2121,
- 열차 안내: 31111
- 카드 분실 신고: 986-4544
- 교통사고 신고: 66-5060
- 주 불가리아 한국대사관 사건사고(24시간): +359-88-750-3270(휴대전화) *재외국민 보호 및 긴급상황 발생 시
- 영사 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보통 임차 계약은 1년 기준으로 하며, 1~2달 치의 보증금을 선불로 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현지에서 아파트 임차 시 인터넷 웹사이트 www.homes.bg, <http://www.bulgarianproperties.com> 또는 www.imot.bg를 이용해 희망하는 옵션에 따른 다양한 가격 오퍼를 확인할 수 있다.

소피아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 임차 시에는 난방 시스템이 중앙 난방인지, 전기를 이용한 난방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불가리아 전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난방이 없는 집의 경우, 겨울철 전기 히터 등의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 임차 계약서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 현지어가 가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임차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인의 경우 주택 임차 계약 시 불가리아어와 영어가 혼용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불가리아어로 쓰인 계약서가 우선으로 유효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불합리한 이유로 보증금 반납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이 과거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납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사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향후 보증금 반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전화

주요 통신사로는 A1, Viva com, Yettel 등이 있으며, 희망하는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여 전화 설치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면 약속한 시간에 유선전화 및 인터넷 설치 기사가 방문한다.

전압/플러그

불가리아는 230V/50Hz 플러그 사용 중으로 플러그 변환 어댑터 없이 한국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은 보통 220V/60Hz로 한국(60Hz)과 불가리아(50Hz) 간의 Hz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전자제품이 고장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고가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양국 간의 Hz 차이를 줄여주는 '주파수 변환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수

불가리아의 물은 질이 좋으나 배관 등 수도 시스템이 대부분 노후되어 수도물을 마실 경우 탈이 날 수도 있다. 일반 마트에서 생수 500mL 1병이 약 700원 수준으로 사 먹는 편이 좋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편

불가리아는 중고차 시장 중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가격도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요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 www.cars.bg
- www.mobile.bg
- www.auto.bg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인용으로 등록하거나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개인용으로 등록할 경우 영주권이 있으면 구매하기 훨씬 쉽다. 계약 시 지불한 차량 금액의 2.5%가 세금 및 계약 비용으로 지불된다. 차량 구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량을 구매할 때 BGN 9,999 이하의 금액까지는 현금 지불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BGN 9,999는 약 EUR 5,110이다. 거래가 완료된 지 14일 이내에 새로운 차량 주인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통경찰국에 차량을 재등록해야 한다.

- 판매 및 구매 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 1부 및 차량 등록 서류 2부
- 당해 연도 차량의 금액과 추가 사항
-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 기술검사문서 및 인증서

차량가격

- Volkswagen Golf 8 신차 기준 약 28,000 USD 부터 (수동, 제일 하급 트림)
- KIA CEED 신차 기준 약 23,000 USD 부터 (수동, 제일 하급 트림)

운전면허 취득

- 현지 운전면허 취득 방법

정식 운전학원에서 최소 40시간의 수업과 각 50분 이상의 31회의 실제 운전 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수업 완료 후 운전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고 도로교통국에서 공식 시험을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행하면 운전면허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거주지의 교통경찰국에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면허 종류별로 다르지만 최소 17세 9개월 이상이다. 운전면허를 신청한 사람은 건강 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취득 가능 나이는 18세이다.

- 한국 면허증 교환

한국과 불가리아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불가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불가리아 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 진단 결과(시력, 청력 등)와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불가리아 교통경찰국에 신청하면 2~3주 이내에 발급되며, 한국 운전면허증은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송부된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UniCredit Bulbank: UCB는 불가리아의 자산, 예금 및 대출, 주주 자본의 측면에서 가장 큰 은행이다. 소피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약 3,6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국 170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

- First Investment Bank(FiBank): First Investment Bank(FiBank)는 불가리아의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광범위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3년에 설립된 FiBank는 불가리아의 은행 중 가장 큰 현지 소유 은행이다. 전국의 21개 지점과 68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 United Bulgarian Bank: United Bulgarian Bank는 불가리아의 22개 상업 은행의 합병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다. 1997년 민영화 된 UBB는 국내 및 국제 은행 업무 및 금융 운영에 대한 완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소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불가리아 전역에 190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계좌 개설 방법은 쉬우나 문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불가리아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유효한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 집주소(사무실 주소 가능)
-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 입금액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여러 번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며, 은행 카드를 받으려면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은행 카드는 선택한 주소로 배달되거나 은행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St. George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소피아
커리큘럼	유아부~12학년까지
학비	학비 참고 : https://stgeorgeschool.eu/school-fees-2024-2025/
홈페이지	https://stgeorgeschool.eu/

◦ The Anglo American School of Sofia

도시명	소피아
커리큘럼	유아부~12학년까지
학비	학비 참고 : https://aas-sofia.org/prospective-families/applying-to-aas/tuition-fees/
홈페이지	http://www.aas-sofia.org
비고	영어 학교

◦ American College

도시명	소피아
커리큘럼	8~12학년

학비	학비 참고 : https://www.acs.bg/admissions/tuition-rates/
홈페이지	http://www.acs.bg

○ American English Academy

도시명	소피아
커리큘럼	유치원~12학년
학비	학비 참고: https://aeasofia.com/new/wp-content/uploads/2024/02/Tuition-Rates_20.02.2024_3.pdf
홈페이지	http://aeasofia.com/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 Acibadem City Clinic Tokuda Hospital

도시명	소피아
주소	51B Nikola Y. Vaptsarov Blvd., Sofia, 1407
전화번호	+359-2-403-4000
진료과목	응급병원, 종합병원
비고	○ 홈페이지 : https://acibademcityclinic.bg/tokuda ○ 요청시 영어 진료 가능

○ SOFIAMED

도시명	소피아
주소	Sofia 1797 16 GM Dimitrov Blvd.
전화번호	+359-2-465- 0000, 000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 홈페이지 : https://www.hospitalsofiamed.bg/ ○ 응급전화 : +359 890 123 150

○ Pirogov

도시명	소피아
-----	-----

주소	UMBALSM „N. I. Pirogov ” Sofia, 21 Totleben Blvd.
전화번호	+359-2-915-4411
진료과목	종합병원, 긴급/대형 수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s://pirogov.eu/bg/ ○ 응급전화 : +359-2-9154-213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Paradise Center Sofia, Bulgaria

도시명	소피아
주소	100 Cherni Vrah Blvd
홈페이지	http://paradise-center.com/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 office@paradise-center.com ○ 전화 : +359-882-008-624 ○ 소피아에서 이용 고객이 가장 많은 쇼핑몰

○ The Mall

도시명	소피아
주소	115z Tsarigradsko shose Blvd. Sofia 1784
홈페이지	http://themall.bg/en/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 infodesk@themall.bg ○ 전화 : +359-2-878-7920

○ Sofia Ring Mall

도시명	소피아
주소	The ring road 214
홈페이지	https://www.sofiaring.bg/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 infodesk@ssrm-bg.com

○ Serdika Center

도시명	소피아
주소	NEPI Project one EOOD 48 Sitniakovo Blvd, 3rd floorSofia, 1505 Bulgaria
홈페이지	https://serdikacenter.bg/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 infodesk@serdikacenter.bg ○ 전화 : +359-2-495- 2121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식품점

○ Metro

도시명	소피아
주소	Boulevard
취급 식료품	식품, 일용품, 잡화
비고	일일카드 또는 회원카드 발급 필수

○ Fantastico

도시명	프랜차이즈
주소	-
취급 식료품	식품 위주, 불가리아 현지 식품 프랜차이즈 1위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Garitage Park Sports Center

도시명	소피아
주소	Garitage Park, 2 Donka Ushlinova Str., Office Bldg. 2, Sofia
홈페이지	https://sportscentergaritage.com/?lang=en
소개	최신식 스포츠 센터로 피트니스, 크로스핏, 수영장 등을 보유

○ St.Sofia Golf

도시명	소피아
주소	VILLAGE OF RAVNO POLE, ELIN PELIN MUNICIPALITY
홈페이지	http://stsofiagolf.com/
소개	소피아에서 가장 가까운 골프장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정	2024-01-01	2024-01-01
해방절 (대체)	2024-03-04	2024-03-04
근로자의 날 (대체)	2024-05-01	2024-05-01
부활절 연휴	2024-05-03	2024-05-03
성게오르기의 날	2024-05-06	2024-05-06
슬라브 문자의 날	2024-05-24	2024-05-24
통일절	2024-09-06	2024-09-06
독립절 (대체)	2024-09-23	2024-09-23
크리스마스 연휴	2024-12-24	2024-12-24
크리스마스 연휴	2024-12-25	2024-12-25
크리스마스 연휴	2024-12-26	2024-12-26

10. KOTRA 무역관 안내

○ 소피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B100,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전화번호: +359-(0)2-969-5030
- 이메일: mp920@kotra.or.kr
- 홈페이지 : <https://www.kotra.or.kr/KBC/sofia/KTMIUI010M.html>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로 이동 시

- 공항 도착 터미널 출구를 나와 좌측으로 이동하면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역(Sofia Airport 역/4호선 종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역에서 Obelya 방면 지하철 을 탑승한다. (요금은 1유로 내외 소요)
- Sofia Airport역을 기준으로 9 정거장 후인 줄리오큐리역(Joliot Curie)에 하차 후 인터프레드(Interpred) 출구로 나와 5분 가량 도보로 이동하면 인터프레드 빌딩이 보이며, 무역관은 인터프레드 B동(인터프레드 정문을 바라보고 우측) 100호(한국 기준 2층/불가리아 기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 택시로 이동 시

- 공항 도착 터미널 출구를 나와 우측으로 이동하면 도보 2분 거리에 OK 택시 승강장이 있으며, 택시 기사에게 'Interpred'(인터프레드) 또는 'Joliot Curie'(줄리오큐리)역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다. (10유로 내외 소요)
- 무역관은 인터프레드 B동(인터프레드 정문을 바라보고 우측) 100호(한국 기준 2층/불가리아 기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 * (참고) 일부 사설 택시가 외국인 대상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로가 있어, 현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 OK택시(택시에 9732121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Yellow Taxi를 타거나, 현지 택시 앱인 'TAXI ME'와 'Yellow Taxi' 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INTERNATIONAL TECHNICAL FAIR 2024 (인터네셔널 테크니컬 페어, 기계류)	2024-09-25 ~ 2024-09-28	International Fair Plovdiv	International Fair Plovdiv
HEMUS 2024 (헤무스, 방산)	2024-06-05 ~ 2024-06-08	International Fair Plovdiv	International Fair Plovdiv
BULMEDICA (블메디카, 의료전)	2024-05-29 ~ 2024-05-31	Interexpo center(인터엑스포 센터)	Interexpo
International Food & Drink Exhibition (인터푸드&드링크 엑스포, 식품전, 2024년 미정)	2024-11-08 ~ 2024-11-11	Interexpo center(인터엑스포 센터)	Interexpo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